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입장료 지불의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정 다 혜

2018 年 08 月

#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입장료 지불의사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임 화 순

정 다 혜

이 論文을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 年 06 月

정다혜의 觀光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 年 06 月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Regional Festivals That Uses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Focusing on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Gapado Green Barley Festival -

Da-Hye Jung

(Supervised by professor Hwa-Soon L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ourism Development

2018. 8.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 목 차 >

<b>제 1 장 서론</b> .....	<b>1</b>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	3
제 3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b>제 2 장 이론적 고찰</b> .....	<b>6</b>
제 1 절 지역축제 .....	6
1. 지역축제의 이론적 고찰 .....	6
2. 지역축제의 선행연구 검토 .....	11
3.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 개념 .....	14
제 2 절 조건부가치추정법(CVM) .....	15
1. 가치추정방법론 .....	15
2.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의 적용절차 .....	19
3.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한 선행연구 검토 .....	30
<b>제 3 장 연구 설계</b> .....	<b>33</b>
제 1 절 사례 대상지 현황 .....	33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축제의 현황 .....	33
2. 연구 대상지 선정 .....	36
3.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개요 .....	37
제 2 절 조사 설계 .....	43
1. 설문지 설계 .....	43
2. 설명변수 및 연구모형 .....	48

제 4 장 분석 결과 .....	52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	53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53
2. 방문객 행태 .....	57
제 2 절 경제적 가치 추정 .....	60
1.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	60
2.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 추정 .....	67
제 5 장 결론 .....	69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	69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	72
참고문헌 .....	74
설 문 지 .....	79
Abstract .....	85

## 〈표 목 차〉

<표 2-1> 소규모 지역축제의 의의 변화 .....	8
<표 2-2> 축제의 유형과 분류 .....	9
<표 2-3> 지역축제의 효과 .....	11
<표 2-4> 지역축제 관련 선행연구 .....	13
<표 2-5> 경제적 가치의 분류 .....	14
<표 2-6> 현시선호평가법과 진술선호평가법의 특징 .....	16
<표 2-7> NOAA의 가이드라인 .....	20
<표 2-8>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응답자 편의 .....	23
<표 2-9> 지불의사 유도방법 .....	24
<표 2-10>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의사 유도방법의 장단점 비교 .....	26
<표 2-11>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지역축제 선행연구 .....	32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현황 .....	35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소재별 현황 .....	36
<표 3-3> 제주도특별자치도 월별 축제 현황 .....	36
<표 3-4> 10년간 가파도 청보리 축제 현황 .....	39
<표 3-5> 10년간 가파도 청보리 축제 프로그램 현황 .....	40
<표 3-6>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객선 시간 .....	41
<표 3-7> 10년간 가파도 여객선 요금과 여객항 변화 .....	42
<표 3-8> 제시금액 설계 .....	47
<표 3-9> 편의의 해결방안 .....	48
<표 3-10> 선행연구의 설명변수 .....	49
<표 3-11> 본 연구의 설명변수 .....	50
<표 4-1> 조사방법 및 내용 .....	52
<표 4-2> 응답자의 성별 .....	53
<표 4-3> 응답자의 연령 .....	53
<표 4-4> 응답자의 거주 지역 .....	54
<표 4-5> 도내·도외 방문객 분포 현황 .....	54

<표 4-6> 응답자의 최종학력 .....	55
<표 4-7> 응답자의 직업 .....	56
<표 4-8>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	57
<표 4-9> 가파도 및 축제 방문 경험 .....	57
<표 4-10>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 목적 .....	58
<표 4-11> 축제 동행자 .....	59
<표 4-12> 축제를 알게 된 경로 .....	59
<표 4-13> 축제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 .....	60
<표 4-14>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응답률 .....	62
<표 4-15>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확률 .....	63
<표 4-16>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 .....	64
<표 4-17> 평균 지불의사금액 추정 결과 .....	65
<표 4-18> 분석 모형 추정 결과 .....	66
<표 4-19>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 .....	68

##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구성 .....	5
(그림 2-1)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절차 .....	21
(그림 3-1) 설문지 작성 절차 .....	43
(그림 3-2) 본 연구의 가상 시나리오 .....	44
(그림 4-1)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지불의사금액 분석 모형 .....	61
(그림 4-2) DBDC모형 지불의사금액 함수 추정 그래프 .....	65
(그림 4-3)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모형 .....	67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지역축제와 같은 여가 이벤트는 지역의 홍보와 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확대되었고(이정학, 2012), 점차 지역발전전략으로 강조되면서 지역의 문화와 자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인식되었다(농촌진흥청, 2008). 지역 축제는 지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들 간의 연대감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사회적 효과와 더불어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수입 증대 및 고용창출이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하면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생겨난 많은 지역축제는 양적인 성장만 거듭했을 뿐, 다른 축제와 차별성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축제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하고,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외면받는 축제로 전락하였다. 이러한 축제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에만 급급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내실 없는 축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관 주도 하에 성장한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축제의 예산을 거의 공공이 부담하였고(강진갑, 2016), 그 결과 축제로 인한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축제 예산의 구성 비율 중 중앙 및 지방정부 보조금의 비중이 평균 85.2%에 달하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한국관광공사, 2010; 정찬영·이훈, 2014).

2003년 이후 축제 예산이 평균 16.9% 증가함에 따라 2008년 중앙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효율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축제 통폐합 및 문화관광축제의 3년 지원 정책 등의 시행으로 2009년에 3,3137억 원 지원되던 축제 예산이 2011년에는 2,352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약 200여 개의 지역축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되었다(고용노동부, 2012; 한국관광공사, 2013). 또한, 최근 정부는 2017년부터 축제를 통폐합하고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를 실시하면서 축제 예산 삭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들로 인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대다수의 국내 지역축제들은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지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정하, 2013). 이에 따라 각각의 지역축제들이

예산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자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류정아, 2009; 정찬영·이훈, 2014; 석창호, 2016; 이장철, 2017). 즉,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축제의 재정자립도는 축제 예산 운영의 경제적 자립성을 의미하며,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축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축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 없이 축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축제의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상팔 외, 2013). 특히, 마을단위에서 주최하는 소규모 지역축제의 경우 축제를 지역 사업의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김희승, 2006), 축제 운영조직의 경제적 자생력은 축제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축제 운영조직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축제 보조금이나 협찬금, 프로그램의 유료화, 입장료 도입 등이 있다. 그러나 보조금이나 협찬금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확실한 수입원으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예산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정강환, 2004; 안정하, 2013). 프로그램 유료화의 경우, 소규모 지역축제는 방문객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 입장료를 받는 것이다. 축제의 입장료 도입은 축제 운영 조직의 경제적 자생력을 높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며, 보조금 절감을 통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찬영·이훈, 2014).

이제는 단순히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축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역축제를 하나의 지역사업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축제를 경영하는 시대로 변화해야 한다(조병훈, 2007; 이동필 외, 2010; 정찬영·이훈, 2014). 축제의 자체적인 수익 창출로 운영 조직의 경제력이 향상된다면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를 위해 축제 운영 조직이 경제적으로 자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제의 유료화를 가정하여 축제 운영 조직의 자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축제 운영 조직의 재원 확보는 축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 활성화를 통해 축제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축제의 유료화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축제에 대한 입장료 지불의사를 추정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축제와 같이 시장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재화의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는 것은 대상 재화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도를 찾아내어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즉,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축제의 소비자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를 위해 얼마나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지불의사금액(WTP)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축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입장료 지불의사금액(WTP) 도출하고,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축제 운영 조직의 자생방안으로 입장료 도입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지역축제와 경제적 가치의 개념을 정립하고,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선행연구를 통해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이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정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축제의 입장료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고, 유의미한 설명변수 선정하여 가파도 청보리 축제에 적합한 지불의사금액별 수요 추정 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축제 입장료 도입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지속적인 개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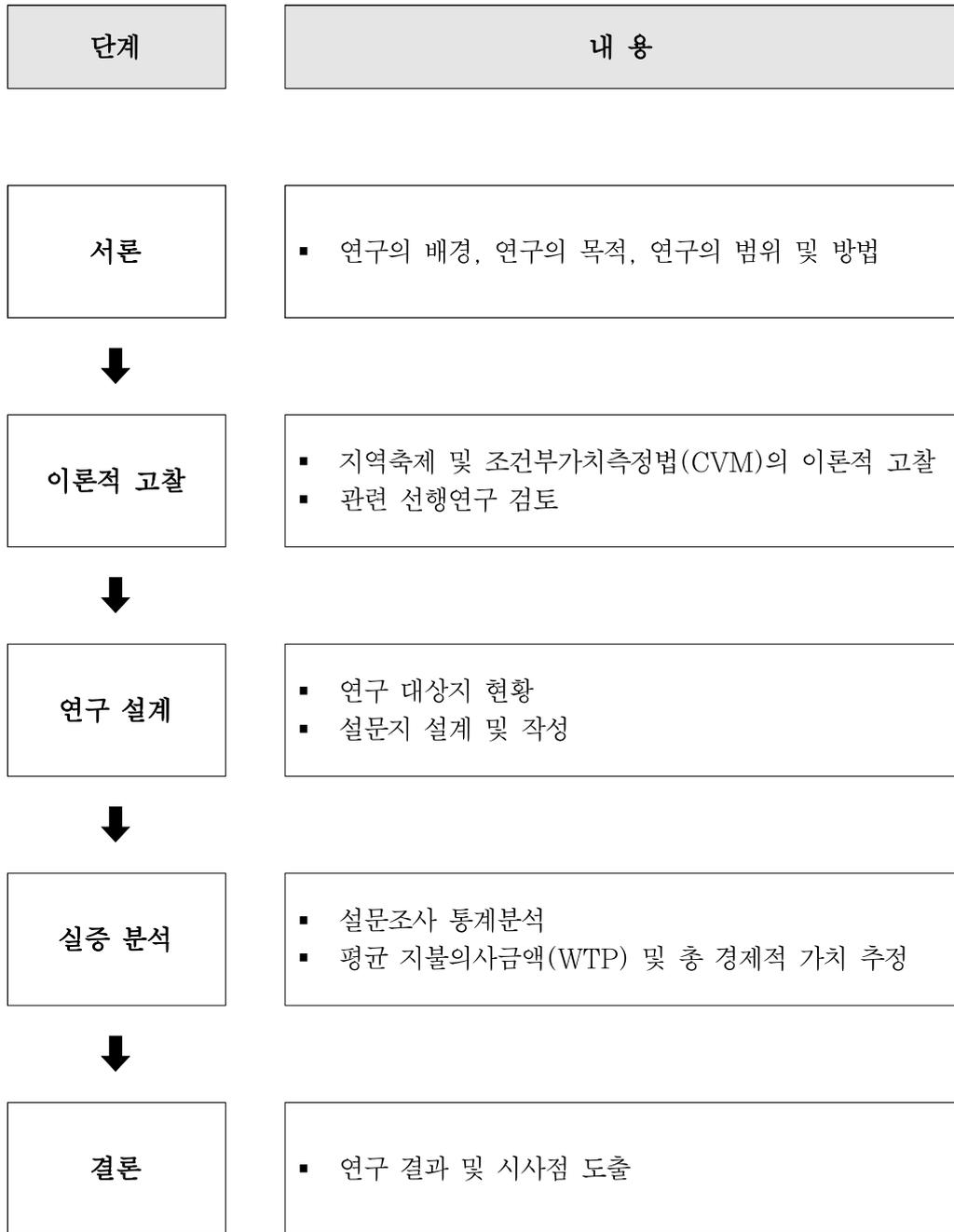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지역축제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가치추정방법론을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본 연구에 적절한 방법론을 선정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적용하였고, 조건부가치추정법의 개념 및 적용절차에 대한 검토와 연구대상지인 가파도 청보리 축제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적용절차에 따라 설문지를 설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작성 및 조사, 분석과정을 통하여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입장료 지불의사금액과 총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입장료 적용 가능성과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가파도 청보리 축제 기간인 2018년 4월 14일부터 5월 14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가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일원이다, 연구의 대상은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경험한 방문객들로 설정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초기 제시금액 설계를 위해 개방형 질문법을 사용하여 2018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도민 대상으로 첫 번째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표본과 제시금액 오류의 우려가 있어 4월 21일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두 번째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5가지의 제시금액을 도출하여 2018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NOAA 패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응답자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불의사 초기 제시금액의 예/아니오 대답에 따라 한 번 더 질문하는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으로 채택하여 1:1 면접조사를 진행

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무응답률이 높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382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구성

## 제2장 이론적 고찰

### 제1절 지역축제

#### 1. 지역축제의 이론적 고찰

##### 1) 지역축제의 개념 및 의의

축제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또는 축하와 제사의 총칭’으로 나타나 있고, 영어로 축제를 뜻하는 ‘festival’도 ‘신선한 향연’이란 뜻을 가진 ‘festum’에 어원을 두고 있다(김학도, 2010). 시대에 따라 축제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면서 과거에 축제는 제의적인 성격이 강한 행사였으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체험행사, 공연, 특산품 판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축제를 지역민과 방문객들이 어우러져 즐기는 행사로 인식하고 있다. 종전에는 지역축제를 향토문화제, 향토문화축제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했으나, 자기고장 중심의 향토라는 용어 대신 가치 중립적인 지역축제라는 용어를 선호하게 되었다(민병호, 1998).

축제는 공공적이며 특색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러 형태로 축제행위에 참여하여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행사이다(Getz, 1991; 류인평·박용배, 2006). 축제 중에서도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두는 지역축제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놀거리·먹거리·배울거리 등을 제공하여 체험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김성혁 외, 2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에서는 지역축제를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교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체성 확립과 방문객의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삶과 전통문화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정의하였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바탕을 둔 문화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가 욕구를 충족시키며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 동시에 지역주민에겐 정체성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일깨워준

다. 또한, 지역축제를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로 인식하며, 축제를 통한 지역 브랜드화로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지역 발전을 꾀한다(조안나, 2010; 정은정·김창수, 2013). 따라서 지역축제는 지역 발전 방안의 하나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사회·문화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상호작용으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도록 하는 행사이다(김현철, 2014).

지역축제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지역주민들만 즐기는 행사가 아닌 관광객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을 알리는 관광이벤트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갔다. 관광이벤트란 개최지의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 수입 증대 등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주민보다는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기획한 이벤트를 의미한다(정강환, 2004). 지역축제가 관광이벤트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가는 현상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축제의 관광 상품화를 통해 지역을 알리고, 도시민들을 농어촌 지역으로 유인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지역축제들은 축제를 하나의 지역사업으로 인식하고, 축제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 수입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김희승, 2006).

소규모 지역축제란 농어촌지역의 마을단위에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의식 제고와 더불어 지역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이다(농어촌연구원, 2013). 소규모 지역축제는 농어촌이라는 공간에서 마을이 가진 고유한 이미지에 어울리는 주제를 정해 타 지역민들에게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김희승, 2006; 이경화, 2016). 소규모 지역축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전략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시대의 중요한 지역 발전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영호, 2007).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지역축제를 지역의 홍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개최되며,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상호교류의 장 및 여가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제공하는 행사로 정의하였다.

과거 농업사회에서 소규모 지역축제는 공동체 생활을 위한 마을 행사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점점 변화함에 따라 농촌 인구의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과거의 공동체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주민들의 연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제가 개최되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로는 지역 이미지 강화의 수단으로 지역축제를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방문객들에게 지역특산물 판매와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더

불어 사회적으로 지역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 제고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김희승, 2006; 김학도, 2010).

〈표 2-1〉 소규모 지역축제의 의의 변화

구 분	여건	지역축제의 의의
1960년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사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의식</li> <li>▪ 민족의식 유지</li> </ul>
1960~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사회로 변화</li> <li>▪ 농촌공동체 해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 문화 보존</li> <li>▪ 지역민 일체감 확인</li> </ul>
199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생산 및 생활공간</li> <li>▪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이미지 강화</li> <li>▪ 축제의 관광 상품화</li> <li>▪ 지역경제 활성화</li> <li>▪ 지역공동체의 화합</li> </ul>

자료 : 김희승(2006).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 추진 방안」 인용 후 수정

## 2) 지역축제의 유형

축제는 사회적 환경과 문화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갖추었다. 과거에는 공동체 중심의 축제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생활양식과 지리·환경적 여건, 산업화로 인해 여러 유형의 축제들로 분류된다(김일용, 2009).

한국관광공사(2013)는 지역축제를 〈표 2-2〉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축제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자극하고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지향형 축제, 지역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지향형 축제, 내부지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사회의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쌍방향 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축제의 개최 목적별로 구분하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어온 주민화합형 축제와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산업 축제가 있다. 또한, 지역을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유도형 축제와 지역의 인물이나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개최하는 특수목적형 축제로 구분된다. 축제 운영방식에 따라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관 중심형 축제, 축제 추진위원회 등 민간조직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민간주도형 축제, 주민 스스로가 만들고 참여하는 주민중심형 축제, 주민, 자치단체, 대행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형 축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지역축제를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따른 분류는 현실적으로 분류하기가 분명하지 않고 중복되는 점이 많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이우경, 2012).

〈표 2-2〉 축제 유형과 분류

명 칭		내 용
축제 지향성	내부지향형	지역민들의 애郷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내 고장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며, 단결과 화합 및 공동체 의식함양 등의 지역사회 내부를 목표로 하여 실시되는 축제로 현대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사회·문화적인 목적을 가진 축제
	외부지향형	지역의 정체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의 관광 및 산업발전 등 지역의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축제로 관광객 유치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쌍방향형	내부지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외적인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방식의 축제
축제 개최목적	주민화합형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어온 축제로 자연 의존형 축제가 많음
	산업축제	지역 산업의 육성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관광유도형	지역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이 경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흥미와 보람을 제공하는 축제
	특수목적형	지역의 인물 추모나 환경보호 등 특별한 목적을 지닌 축제
축제 운영 방식	관 중심형	중앙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축제
	민간주도형	추진위원회 등의 민간조직을 결성하여 민간조직이 중심이 된 축제
	주민중심형	주민 스스로가 만들고 운영하는 순수 주민형 축제
	네트워크형	주민, 자치단체, 대행사 등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 운영하는 축제

자료 : 한국관광공사(2013),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활용 신규 정책사업 발굴」 재인용

### 3) 지역축제의 효과

지역축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당 지역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출 효과와 고용 효과가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고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Getz, 1991; 김학도, 2010). Getz(1991)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관광 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로 인해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관광 수입이 증대되고 지역의 소득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축제에서 방문객의 지출은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효과와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을 유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축제 개최로 인해 다양한 고용 효과가 발생하고, 특정한 지역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시설비, 운영비 등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속희, 2000; 우경진, 2017).

지역축제는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애郷심을 고취하고, 지역주민 간 연대감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itchie, 1984).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역주민들은 축제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郷심이 생기고, 축제 참여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 일체감이 조성되면서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게 된다(김학도, 2010). 또한, 지역축제는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하나의 관광 목적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정강환 외, 2012).

더불어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의 문화발전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한다(송재호, 2003). 지역 문화를 이용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는 수단이 되며,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역 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는 관광객들에게 해당 지역의 생활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Mill & Morrison, 1985; Gitelson & Kiernan, 1995; 김학도, 2010). 즉, 지역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며 더 나아가 지역 간 문화 교류의 장의 역할을 하면서 문화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

〈표 2-3〉 지역축제의 효과

구 분	지역 내 효과	지역 외 효과
경제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객들의 지출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 효과</li> <li>▪ 신규고용창출</li> <li>▪ 세수 증대</li> <li>▪ 연관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숙박, 교통산업 등)</li> <li>▪ 지역경제 활성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교류의 확대</li> <li>▪ 주변지역의 경제발전</li> <li>▪ 세수 증대</li> </ul>
사회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애착심 고취</li> <li>▪ 지역공동체의 화합</li> <li>▪ 주민들 간 유대감 형성</li> <li>▪ 지역의 정체성 확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이미지 제고</li> <li>▪ 지역의 브랜드화</li> <li>▪ 국제화 및 사회적 교류증대</li> </ul>
문화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확대</li> <li>▪ 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li> <li>▪ 지역문화의 보전 및 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간 문화교류 확대</li> <li>▪ 전통문화의 보전 및 계승</li> </ul>

자료 : 김차동·김항석(2010), 「지역축제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전라북도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인용 후 수정

## 2. 지역축제의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지역축제에 관해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지역축제의 문제점 분석 및 성공 요인이며, 두 번째는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으로 나타났다(이은주, 2017). 정강환(1996)은 지역축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지역성이 드러나는 축제 주제 설정,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적절한 홍보전략, 중앙정부의 지원, 주민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 실시, 민간주도의 상설기구 도입을 제시하였다. 김현기(2001)는 충북 지역문화축제의 현황분석을 통해 타 지역과 차별성 부족, 축제 집중화 현상, 주민참여의 부족, 축제 경영전문가의 부족, 축제 마케팅의 미흡을 지역축제의 문제점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종원(2008)은 지역축제의 문제점으로는 지역 정체성의 결여, 관(官) 주도로 인한 주민참여의 부족, 축제 홍보 마케팅의 부족, 예산의 부족 및 낮은 활용도, 축제경영전문가의 부재, 축제 평가시스템의 미비를 들고 있고,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과 축제 콘셉

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 참여, 표적 시장에 맞춘 홍보 전략, 온라인 콘텐츠 활용한 마케팅, 축제 기념품 개발, 축제경영전문가 육성, 지역민, 축제경영주체, 관광객, 전문평가단으로 이루어진 축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김차동·김항석(2010)의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축제가 많이 개최되지만, 특색이 없고 획일적이며, 관(官)에서 주도하는 축제로 인해 경영능력이 미흡하고 축제에 관한 연구·분석·평가체계가 미흡한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민간 주도형 축제형태로 변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 개발,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방안 모색,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신은경(2010)은 외국 지역축제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한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축제 경영 전문 인력 양성, 지역성이 담긴 축제소재 개발, 축제와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의 참여, 주 대상층에 맞는 홍보전략, 축제 방문객 만족도 제고, 축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전문평가단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정훈·김성우(2014)는 의성마늘국제연날리기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지역산업연관모델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축제 기간의 총 지출액은 16억 4천만 원, 생산유발효과는 21억 1천만 원, 수입유발효과는 1억 2천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억 2천만 원으로 나타났음을 제시하면서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축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한성(2015)은 수출기반모형을 이용하여 농어촌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축제에 참가한 방문객들의 지출액들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축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도시민들을 축제로 유인하고, 축제를 운영하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고두갑·곽수경(2017)은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임자도 튼립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8.6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1억 원, 수입유발효과는 3.5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54명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게 나오나 실제 사회에 주는 영향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축제는 지역 산업과 연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고, 지역주민의 참여 의식을 제고 및 축제 프로그램의 보강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축제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축제 운영조직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주장하였지만, 더 나아가 축제 운영 조직이 경제적으로 자생해야 하는 방안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역축제의 경

제적 파급효과는 인지되지만 ,지속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타나 있다. 따라서 축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파급효과에만 집중하여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 운영조직의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표 2-4〉 지역축제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내용
정강환 (1996)	지역축제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지역성이 드러나는 축제 주제 설정, 독창적인 프로그램 개발, 적절한 홍보전략, 중앙정부의 지원, 주민 참여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실시, 민간주도의 상설기구 도입을 주장함
김현기 (2001)	충분 지역문화축제를 사례로 타 지역과 차별성 부족, 축제 집중화 현상, 주민참여의 부족, 축제경영전문가의 부족, 축제 마케팅의 미흡을 지역축제의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이를 개선해야함을 주장함
김종원 (2008)	지역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역 정체성의 결여, 관(官)주도로 인한 주민참여의 부족, 축제 홍보 마케팅의 부족, 예산의 부족 및 낮은 활용도, 축제경영전문가의 부재, 축제 평가시스템의 미비를 제시하고 표적시장에 맞춘 마케팅 전략, 축제 경영 전문가 육성 등을 개선방안으로 주장함
김차동·김항석 (2010)	전라북도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관(官)에서 주도하는 축제에 의해 획일적이고 운영이 미흡하며 축제에 대한 연구, 분석, 평가체계가 미흡한 점을 제시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민간 주도형 축제형태로 변화,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전략적인 홍보·마케팅 방안 모색,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 도입을 제안함
신은정 (2010)	외국 지역축제 사례를 통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축제경영전문인력 양성, 지역성이 담긴 축제소재 개발, 축제와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의 참여, 주타겟층에 맞는 홍보전략, 축제 방문객 만족도 제고, 축제 모니터링 시스템 및 전문평가단 구축 등을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함
이정훈·김성우 (2014)	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하여 의성마늘국제연날리기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지역발전전략으로 지역축제를 활용해야 함을 주장함
이한성 (2015)	수출기반모형을 이용하여 농어촌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축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고두갑·곽수경 (2017)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임자도 툄립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지역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해야함을 주장함

### 3.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 개념

국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들의 경우 지자체에서 주도하는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대중들이 지역축제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지역축제는 일반재화와 달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비시장재화로 공공재로 분류되며,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Rao, 2001; 김학도, 2010; 안정하, 2013). 그러므로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고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선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시장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공공재의 가치는 이용가치(use value)와 비이용가치(non-use value)로 분류된다. 이용가치는 지역의 자원을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로 재화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 등이 포함된다. 비이용가치는 이용자들이 현재 자원을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생기는 가치로 보전가치(preservation value)라고도 한다. 보전가치란 자연 자원이나 수질·동식물·환경 등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이용자들이 잠재적으로 받게 되는 편익을 말한다. 보전가치는 크게 선택권 가치(option value), 존재가치(existence value), 유산가치(bequest value)로 구성되어있다(김사현 외, 2016). 선택권 가치는 미래에 이용 가능성이 있는 가치이며, 존재가치는 그대로의 존재를 유지하는데 부여하는 가치이다. 유산가치는 후손을 위해 자원을 보존하는 것에 부여하는 가치를 뜻한다. 즉, 축제의 이용가치는 방문객들이 축제를 직접 이용함으로써 축제에서 얻는 다양한 편익을 뜻하며, 축제의 비이용가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축제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생겨난 효용 등이 해당한다(이우경, 2012).

〈표 2-5〉 경제적 가치의 분류

구분		내용
이용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적 이용이나 재화 자체의 소비와 관련된 가치 및 재화를 통한 감정적, 정신적 만족 등에 관련된 가치</li> </ul>
비이용가치	선택권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직접 이용하지 않지만 미래에 이용 가능성이 있는 가치</li> </ul>
	존재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직접 이용하지 않지만 그대로의 존재를 유지시키는데 부여하는 가치</li> </ul>
	유산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직접 이용하지는 않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재화를 보존하는 것에 부여하는 가치</li> </ul>

자료 : 이주경(2015), 「조건부가치추정법에 의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경제적 가치추정 연구」 인용 후 수정

## 제2절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1. 가치추정방법론

지역축제와 같은 비시장재화는 일반 재화와 달리 시장 기구에 의해 그 가치를 제대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자원경제학에서는 1960년대부터 자원 이용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신백수, 2005).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은 현시선호평가법(RP: Revealed Preference Method)과 진술선호평가법(SP: Stated preference Method)으로 나뉜다<sup>1)</sup>. 현시선호평가법은 나타나 있는 개인의 선호에 기반을 두어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반면에 진술선호평가법은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사람들에게 대상 재화의 상태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할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해 대답하는 선호를 이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현시선호평가법은 시장에서의 거래되는 행위를 관찰하므로 사후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고, 진술선호평가법은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재화에 대한 가상적 시장을 이용하므로 사전평가법이라 할 수 있다(박재석 외, 2011). 즉, 현시선호평가법은 환경재와 보완 또는 대체 관계에 있는 관련 시장에서 나타나는 개인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환경질에 대한 개인의 지불의사액(WTP)을 추정하는 것이고, 진술선호평가법은 개개인에게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질문함으로써 환경질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을 직접 추론하는 것이다(윤신정, 2008).

현시선호평가법은 대상 재화가 반드시 시장과 연관이 되어있어야만 하고, 이미 발생한 행위를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회고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에 반해 진술선호평가법은 비이용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질문을 포함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제한적이지 않다(김용주, 2007; 윤신정, 2008). 현시선호평가법은 적용할 때 진술선호평가법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지만, 적용 대상에 제약이 있고, 비이용가치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진술선호평가법은 고비용이 들지만 이론적으로 정확하며 적용대상의 제약이 없다. 따라서 고비용의 단점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 진술선호평가법

1)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방법은 199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구분방법에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있었는데 90년대에는 직접(direct)/간접(indirect)이라는 개념 구분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2000~2002년대에 들어와서는 "시장"의 형태에 따라 간접시장과 가상시장으로 나누었고 2003년 이후 현시선호(RP)와 진술선호(SP)의 구분이 명확해진다(최성록, 2004; 윤신정 2008 재인용)

이 현시선호평가법에 비해 바람직하며, 이런 이유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이 널리 적용되고 있다 (박재석 외, 2011 재인용).

〈표 2-6〉 현시선호평가법과 진술선호평가법의 특징

구분	방법론	특징
현시선호평가법	헤도닉가격기법 여행비용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에서의 거래행위를 관찰하는 사후평가법</li> <li>▪ 현실적으로 적용이 용이하지 않아 적용대상의 제약이 있음</li> <li>▪ 과소추정 및 과대추정의 가능성</li> </ul>
진술선호평가법	조건부가치측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상적 시장을 이용하는 사전평가법</li> <li>▪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에 적합함</li> <li>▪ 이론적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li> <li>▪ 조사에 많은 비용 소요</li> </ul>

자료 : 박재석 외(2011),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우체국 네트워크의 사회적 가치 추정」 재인용

#### 1) 헤도닉가격기법 (HPM: Hedonic Price Method)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재화의 비시장적인 요인들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할 때 고려하였을 모든 요인들로 재화를 분해하여 각각의 요인에 대해 가치를 설정하는 모형이 헤도닉 가격기법(HPM: Hedonic Price Method)이다. 헤도닉 가격모형은 환경경제학에서 비시장재화에 대한 화폐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활용되며, 1967년에 처음으로 제안된 이후 1974년도에 이론적 기초가 완성되었다. 헤도닉 가격기법은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거나 주택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등에 활용되기도 하고, 주택가격과 비시장재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박재석 외, 2011).

헤도닉 가격기법의 설명하기 가장 쉬운 예로 주변 환경 요인들로 인한 주택 가격의 차이를 들 수 있다(환경부, 2004). 예를 들어 자연이라는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선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을 통해 자연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내천과 산책로를 조성함으로써, 주변 100가구의 아파트 가격이 예전보다 1천만 원이 상승하였다고 하면 이는 같은 조건의 아파트에 비해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한 가격이다. 따라서 1천만 원이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의 가치라고 할 수 있으며 증가분이 발생한 가구 수를 곱하여 내천과 산책로의 가치가 10억 원이

라고 추정한다. 즉, 헤도닉 가격기법은 부동산 가격 등 시장재화의 데이터를 통해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한다. 그러나 공공재 같은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선 대체되는 시장재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헤도닉 가격 기법의 실제 적용 범위는 부동산 시장에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류문현, 2009).

## 2) 여행비용접근법 (TCM: Travel Cost Method)

여행비용접근법(TCM: Travel Cost Method)은 Hotelling이 1947년 미국 국립공원국(National Park Service)에 보낸 편지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 후 Clawson과 Knetsch에 의해 이론적으로 더욱 발전하여 비시장재화의 가치추정방법으로는 가장 오래 되었다(김사현 외, 2016; 류문현, 2009). 여행비용접근법은 재화나 서비스를 경험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여행 비용을 지불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이주경, 2015).

여행비용접근법의 기본 모형에는 지역에 따른 여행비용과 방문객 비율의 관계를 추정하는 지역모형(ZTCM: Zonal TCM)과 개인의 여행비용과 여행횟수와의 관계를 추정하는 개인모형(ITCM: Individual TCM)이 있다(이우경, 2012). 지역모형은 특정 관광지에 온 여러 지역 방문자들의 지역별 평균 방문율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거리(여행비용)를 독립변수로 취하는 전통적 여행비용접근법이고, 개인모형은 방문자별 방문횟수를 종속변수로, 개인별 속성을 독립변수로 취하는 모형이다(김사현 외, 2001).

여행비용접근법은 특정 지역의 관광 가치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비교적 이용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목적지가 한곳이 아니거나 장기 여행자의 경우 특정 여행지에서의 여행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여행시간의 기회비용을 처리하는 게 어렵고, 비이용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이우경, 2012). 또한, 여행비용법은 일반인들이 여가생활을 위하여 지불하는 여행비용과 입장료와 여행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으로 공공재의 가치를 도출하는 것으로(권오상, 1999), 이는 실제 활동에 참가한 내용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여가생활 지역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 3) 조건부가치측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1950년대 말부터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었고, 대표적인 방법론들이 앞서 언급한 여행비용접근법과 헤도닉 가격기법이다. 그러나 이 두 모형은 이

용자의 의사결정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적당한 추정함수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도출되었다(박재석 외, 2011).

조건부가치추정법은 평가하고자 하는 공공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상의 상황을 제시한다. 이러한 가상 상황이 유지되는 대가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설문함으로써 그의 지불의사액을 파악하여 대상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Davis가 처음 제안한 이 방법은 초기에는 ‘입찰게임’(bidding game)이라 불렀으나,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고 그 가치를 직접 설문한다는 의미에서 근래에는 가상적가치추정법 또는 조건부가치추정법으로 불린다. 이 방법은 시장정보나 대리시장, 잠재가격 등을 이용한 가치 평가방법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인터뷰를 하여 응답자의 주관적 가치 평가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김사현 외, 2016).

조건부가치추정법은 이용가치뿐만 아니라 비이용가치를 모두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넓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추정방법들과 달리 가상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를 추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제시된 상황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의 보조 자료를 이용해야 한다(류문현, 2009).

조건부가치추정법은 편익을 얻기 위하여 개인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액(WTP: Willingness to Pay) 또는 편익 손실 대가로 보상받고자 하는 최저액(WTA: Willingness to Accept)을 직접 묻는다(김은주, 2013; 이주경, 2015 재인용). 지불의사액(WTP)이란 어떤 자원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편익이 기대될 때 이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편익의 종류와 관계없이 측정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데 제한이 없다(고수경, 2001; 김은주 2013; 이주경 2015). 지불의사액(WTP)은 경제학자인 존 Hicks(J. R. Hicks, 1946)가 제시한 소비자의 후생변화의 개념인 보상잉여(CS, Compensating Surplus)의 개념을 사용하여 직접 응답하게 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이주경, 2015).

#### 4) 방법론 선정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헤도닉 가격모형, 여행비용접근법, 조건부

가치측정법이 있다. 헤도닉 가격모형은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고,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시험 다중공선성을 제거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통계학적 숙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여행비용접근법은 조건부가치측정법과 같이 국립공원이나 생태공원 등 자연자원과 여가활동과 관련한 비시장재화의 가치 추정 방법론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다(박광서, 2003). 여행비용접근법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비교했을 때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이용가치와 비용가치를 모두 측정할 수 있지만 여행비용접근법은 이용가치만 측정할 수 있다. 둘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적인 환경의 양적, 질적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할 수 있지만 여행비용접근법은 이를 측정할 수 없다. 셋째, 조건부가치측정법은 한 방문객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 휴양지를 방문할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으나, 여행비용접근법은 단일 목적을 가지고 단일 휴양지만을 방문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Sorg와 Nelson, 1987; 안정하,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화의 이용가치와 비용가치를 모두 추정할 수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응답자들에게 가상적 상황을 제시한 뒤 응답자들이 느끼는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기 때문에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정찬영·이훈, 2014).

## 2.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적용절차

### 1)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배경

조건부가치측정법은 Ciriacy-Wantrup(1947)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토양보호의 경제성 분석 연구 중 비시장재화의 증가에 따라 각각의 양에 대해 사람들에게 지불의사를 물어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Ciriacy-Wantrup 1947; 신백수, 2005). 그러나 공공재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은 전략적 편의로 인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경제학 분야에서 학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주경, 2015). 그 후 Davis(1963)가 하버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입찰게임(bidding game)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이 실증적인 연구방법론으로 적용되었다(신백수, 2005).

이후 1989년 엑손 발데스(Exxon Valdez) 유조선이 미국 알래스카 주의 윌리엄 프린스만 지역에서 좌초되는 사건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었다(박정원, 2012). 이 사건으로 엑손사에 청구할 피해보상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미국 국립해양대기관

관리국 (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Kenneth Arrow와 Robert Solow를 공동위원장으로 총 6명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1993년 1월에 발표된 NOAA 패널의 보고서에서는 비이용가치의 존재를 인정하며,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조건부 가치측정법의 적용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주경, 2015; 박재성, 2017).

## 2) NOAA의 가이드라인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Kenneth Arrow와 Robert Solow를 포함한 6명의 경제학자로 이루어진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패널이 보고서를 통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신뢰성을 인정하면서 더욱 적용범위가 커지고 있다. NOAA 패널의 보고서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무분별한 사용과 비현실적인 가치 추정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2-7>과 같다(권오상, 1999).

<표 2-7> NOAA의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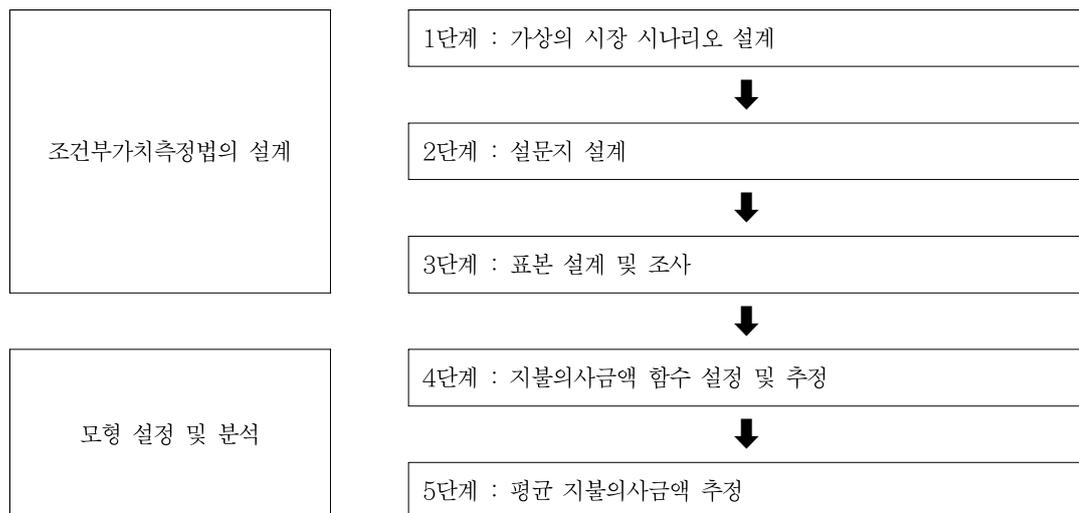
순서	가이드라인
1	면담조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전화조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2	수용의사액(WTA)보다는 지불의사액(WTP)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3	가치평가대상(정책)의 효과 및 비용 등에 대한 정보와 지불방식, 지불수단 및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설문지 회수율 및 설문 항목 응답률을 높여서 무응답을 최소화해야 한다.
6	가치 평가 질문 외에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시켜야 한다.
7	평가대상이 되는 재화의 대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8	추가 질문을 통해 응답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선택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NOAA(1993).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응답자가 가상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시각 자료 등 보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화나 우편조사에서는 제약이 있고, 표본 선정에서 특정 계층에 치우치는 편이가 발생할 수 있어 대면조사를 권고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수용의사액과 지불의사액이 심리적인 이유로 결과에 차이를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는 지불의사액을 이용하여 추정해야 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가치평가 대상의 효과와 비용, 지불방법 등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응답자들의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권고하고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고 무응답률을 줄여야 하며, 다양한 설명변수를 포함하여 응답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후속 질문을 사용하여 응답자들이 질문에 제대로 응답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Arrow, et al., 1993; 이주경, 2015).

### 3)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의 적용절차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연구에 적용할 때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 시나리오의 설정, 설문지 설계, 표본 설계 및 조사의 단계를 거쳐 지불의사금액 함수 설정 및 추정의 과정을 통해 적용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절차

### (1) 가상시나리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비시장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대상 재화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바꾸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개인의 편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상 시나리오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선 응답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가상 상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상 시나리오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와 기간, 대상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하고, 그로 인해 응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에 대해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응답자 편익(Bias)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여 비시장재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물어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대답하는 지불의사액에 대한 편익이 클 수 있다. 편익(bias)란 응답자의 대답과 진실된 가치의 차이를 말하며, 설문조사와 분석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적용에 있어 편익을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안정하, 2013; 김사현 외 2016).

출발점 편익(starting point bias)는 응답자들이 처음 제시된 금액에 영향을 받아 지불의사금액을 결정하는 문제를 말한다. 지불수단 편익(vehicle bias)는 세금, 입장료, 사용료, 가격, 기금 등 지불수단에 따라 응답자들이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다르게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정보편익(information bias)는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할 때 비시장재화에 대한 지불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전략적 편익(strategic bias)는 응답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불의사금액을 높게 또는 낮게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 편익(hypothetical bias)는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았거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순종적 편익(compliance bias)는 조사자의 의견이 응답에 개입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우편조사보다 전화나 대면조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변일용, 2008; 안정하, 2013).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8>과 같다.

〈표 2-8〉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응답자 편익

편익	설명
출발점 편익 (starting point bias)	설문지에 처음 제시된 금액에 영향을 받아 지불의사금액을 결정하는 문제
지불수단 편익 (vehicle bias)	지불수단에 따라 응답자들이 해당 비시장재화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는 문제
정보 편익 (information bias)	조사자가 응답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
전략적 편익 (strategic bias)	응답자가 자신이 실제로 지불하려는 지불의사금액보다 적게 또는 과장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문제
가상적 편익 (hypothetical bias)	응답자가 설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았거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
순종적 편익 (compliance bias)	조사자의 의견이 응답에 개입될 때 발생하는 문제

출처 : 안정하(2013), 「유료화를 위한 문화관광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인용 후 재편집

### (3) 지불의사 유도방법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사용되는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는 입찰게임(bidding game), 개방형 질문법(open-ended question), 지불카드법(payment card), 양분선택형 질문법(dichotomous choice question) 등이 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따라 지불의사금액의 추정치가 다르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지불의사 유도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대체적으로 지불의사 유도방법 중 지불카드방법과 양분선택형방법이 다른 방법들보다 나은 것으로 추천되었다. 지불카드방법은 개방형질문이나 입찰게임 방법보다는 응답자 편익을 줄일 수 있고, 비용측면에서도 양분선택형 질문보다는 저렴하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응답자가 예/아니오로 대답하므로 무응답률이 적고, 출발점 편익이나 설문조사원의 편익에 의한 영향이 다른 유도방법에 비해 적고, 비합리적인 지불의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응답자의 전략적 편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태호, 2007).

〈표 2-9〉 지불의사 유도방법

지불의사 유도방법	내 용
입찰게임 (bidding ga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VM 초기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방식으로 응답자들에게 특정 초기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상향 혹은 하향 조정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여 응답자의 진정한 지불의사금액(WTP)에 수렴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입찰하는 방법</li> <li>▪ 시작점 편익의 '예-예' 발언 편익 등의 우려가 있음</li> </ul>
개방형 질문 (open end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에게 비시장재화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직접 묻는 방법</li> <li>▪ 대체로 비시장재에 대한 구매경험이 없고 생소하므로 무응답률이 높거나 비합리적인 지불의사금액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음</li> </ul>
지불카드 (payment c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액수부터 큰 액수까지 일련의 가격이 적힌 카드를 제시하고, 그 중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li> <li>▪ 전략적 편익의 우려가 있음</li> </ul>
양분선택형 질문 (dichotomous cho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제시금액을 응답자들 사이에 무작위로 배분한 뒤,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예'와 '아니오'로 대답하도록 하는 방식</li> <li>▪ 단일양분선택형과 이중양분선택형으로 구분</li> </ul>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2008).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수정·보완 연구(제5판)」 인용 후 재구성

입찰게임은 가장 오래된 유도방법으로 Randall, Berry & Eastman(1974)에 의해 고안된 방법으로 단순입찰게임과 방법입찰게임의 두 종류가 있다. 단순입찰게임에서는 응답자에게 기존의 비시장재화의 여건을 그대로 제시하고 이용하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묻는다. 그 후 지불의사액들의 평균값을 구하고 연간 이용자 수에 곱하여 총 지불의사금액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반면, 반복입찰게임은 응답자에게 일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의사를 묻는다. 응답자가 '예'라고 답하면 질문자는 그 가격을 높여서 다시 묻는다. 응답자가 제시되는 가격에 합의할 때까지 지불의사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응답자가 처음 제시된 금액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시작점 편익(starting point bias)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변일용, 2008).

개방형 질문법은 응답자에게 직접 본인의 최대 지불의사액을 묻는 방법이다. 개방형 질문법은 직접 응답자에게 의사를 묻는 방법이기 때문에 설문자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장

점이 있고 입찰게임이 갖는 출발점 편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한 비시장재화에 대한 화폐가치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 경우 무응답률이 높거나 비현실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신백수, 2005; 고태호, 2007).

지불카드법은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알아보기 위해 작은 액수부터 큰 액수까지 일련의 가격이 적힌 카드를 제시하고, 그중에서 하나의 금액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Hanemann(1978)이 가장 먼저 지불카드법을 사용하였고, Mitchell & Carson(1981)이 출발점 편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발전 시켰다. 응답자가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문제와 입찰게임의 출발점 편이를 해결해주지만 고정점 편이(anchor point bias)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고정점 편이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과 지불카드에 기입된 다른 공공재가 관련이 있는 경우 응답자가 평가대상에 대한 자신의 지불의사액을 공공재의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고정점 편이를 줄이기 위해 지불카드에 나타내는 공공재를 평가대상과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선택하여야 한다(김학용, 2002).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개방형 질문법, 입찰게임, 지불카드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Bishop & Heberlein(1979)에 의해 고안된 방법이다. 응답자에게 사전조사를 통해 미리 설정된 금액을 제시하고 지불의사여부를 묻는 방법이다. 응답자는 단순히 제시금액에 대해 “예”, “아니오”로 대답하므로 응답에 대한 부담과 무응답률을 줄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응답자들에게서 실제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정확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양분선택형질문법은 전략적 편이가 발생하지 않고 출발점 편이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이다. 그러나 제시금액이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도 응답자는 하나만을 선택하게 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지불의사금액이 높게 추정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Carson, Hanemann & Mitchell(1986)이 양분선택형질문법의 단점을 고안하기 위해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미리 설계된 특정 금액을 질문하는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고안하였다(김학용, 2002; 고태호, 2007).

〈표 2-10〉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의사 유도방법의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직접제시 방법	개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평가됨</li> <li>시작점 편이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응답률이나 '0'이라고 표기하는 비율이 매우 높음</li> <li>무턱대로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비율이 높음</li> <li>응답자별 격차가 매우 커져 신뢰성이 저해됨</li> </ul>
	입찰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답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에 도달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시된 금액을 모범답안처럼 생각하여 최초에 제시한 금액에 근사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시작점 편이)</li> </ul>
	지불카드 제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답의 변이를 많이 줄일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하고자 하는 대상과 지불카드에 가입된 다른 공공재가 관련이 있는 경우 응답자는 공공재의 금액을 평가대상에 대한 자신의 지불의사액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조정점 편이)</li> </ul>
투표형 방법	단일양분 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사결정과정과 유사한 사고절차를 하게 하여 실제 지불의사금액과 가깝게 나타날 가능성이 큼</li> <li>응답이 간단하여 무응답률이 낮음.</li> <li>표현의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전략적 편이가 줄어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답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적음</li> <li>구체적인 정보는 이어지는 설문을 이용해야 함</li> <li>복잡한 계량 분석절차가 필요</li> <li>비용이 많이 소요</li> </ul>
	이중양분 선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 한번 질문하는 경우보다 많은 정보와 표본수를 얻을 수 있음</li> <li>투표모형의 장점을 살리면서 적은 비용으로 통계분석에 필요한 만큼의 표본수를 확보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복질문을 행하는 경우 원래의 투표모형에는 없는 시작점편이나 전략적 편이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음</li> </ul>

자료 : 환경부(2004), 「환경재에 대한 편익추정 지침서」 재인용

(4)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한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연구모형

연구자는 지불의사금액 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설명변수와 함수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OLS) 선형회귀분석 또는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MLE) 등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함수를 추정한다(신유림, 2016). 일반적으로 분석모형은 로짓모형이 프로빗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정이 용이하고 모형의 적합도가 높게 나타나며 지불의사금액의 산출이 비교적 편리하다(김종대 등, 2002).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최대우도추정법(MLE)를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 함수를 추정한다. 최대우도추정법은 관찰 자료의 가능성을 최대화 하는 값으로 미지수의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즉, 최대우도추정법에서는 알고 있거나 가정한 확률함수 하에서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을 제공해주는 추정치를 구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고태호, 2007). 최대우도추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  $L$ )를 설정하고, 이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값으로 미지수를 추정한다. 여기서 우도함수란 미지수에 따른 관찰자료의 가능성을 함수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우도함수  $L$ 값은 0에서 1사이에 있게 되며, 사례 수가 많은 경우에는 대단히 작은 값이 되므로 계산이 용이하게 우도함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로그우도함수(Log Likelihood Function)를 계산하여 사용한다(고태호, 2007 재인용).

단일양분선택형 질문법의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제시액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 형태는 2가지 경우(yes, no)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로그우도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ln L(\theta) = \sum_1^N [D_i \ln \pi^y + (1 - D_i) \ln \pi^n], \quad \dots(1)$$

$N$ : 관측치 수,  $D_i$ :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s),

$D_i = 1$ :  $i$  번째 제시액에 대해 수락,  $D_i = 0$ :  $i$  번째 제시액에 대해 거부,

$\pi^y$ : 제시액에 yes로 응답한 경우의 확률,  $\pi^n$ : 제시액에 no로 응답한 경우의 확률.

응답자  $i$ 가 제시금액( $B_i$ )에 대해 수락 또는 거부할 경우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i^y(B_i) = \Pr [B_i \leq WTP_i] = 1 - F(B_i; \theta) \quad \dots(2)$$

$$\pi^n(B_i) = \Pr [B_i > WTP_i] = F(B_i; \theta) \quad \dots(3)$$

$WTP_i$ : 응답자  $i$ 의 내재된 잠재 지불의사금액,  $\theta$ : 모수 벡터,

$F(\cdot)$ : 임의의 누적확률 분포함수.

DBDC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제시액에 따른 응답자의 반응형태는 4가지 경우(yes/yes, yes/no, no/yes, no/no)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로그우도함수를 설정할 수 있다.

$$\begin{aligned} \ln L(\theta) = \sum_1^N [D_1 \times D_2 \ln \pi^{yy} + D_1 \times (1 - D_2) \ln \pi^{yn} \\ + (1 - D_1) \times D_2 \ln \pi^{ny} + (1 - D_1) \times (1 - D_2) \ln \pi^{nn}]. \end{aligned} \quad \dots(4)$$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의 모형에서는 응답자  $i$ 가 제시금액( $B_i$ )에 대해 수락하게 되면 더 높은 금액( $B_i^u$ )을 제시하게 되며, 거부하게 되면 더 낮은 금액( $B_i^l$ )을 제시하게 된다. 응답자  $i$ 가 초기 제시액  $B_i$ 에 대해 'YES'로 응답하고 더 높은 제시액  $B_i^u$ 에 대해서도 'YES'로 응답한 경우(YES/YES)의 확률( $\pi^{yy}(B_i, B_i^u)$ ),  $B_i$ 에 대해 'YES'로 응답하고  $B_i^l$ 에 대해 'NO'로 응답한 경우(YES/NO)의 확률( $\pi^{yn}(B_i, B_i^l)$ ),  $B_i$ 에 대해 'NO'로 응답하고 더 낮은 제시액  $B_i^l$ 에 대해서는 'YES'로 응답한 경우(NO/YES)의 확률( $\pi^{ny}(B_i, B_i^l)$ ), 그리고  $B_i$ 와  $B_i^l$ 에 대해 모두 'NO'로 응답한 경우(NO/NO)의 확률( $\pi^{nn}(B_i, B_i^l)$ )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i^{yy}(B_i, B_i^u) = \Pr [B_i^u \leq WTP_i] = 1 - F(B_i^u; \theta) \quad \dots(5)$$

$$\pi^{yn}(B_i, B_i^l) = \Pr [B_i \leq WTP_i < B_i^l] = F(B_i^l; \theta) - F(B_i; \theta) \quad \dots(6)$$

$$\pi^{ny}(B_i, B_i^d) = \Pr [B_i^d \leq WTP_i < B_i] = F(B_i; \theta) - F(B_i^d; \theta) \quad \dots(7)$$

$$\pi^{nm}(B_i, B_i^d) = \Pr [WTP_i < B_i^d] = F(B_i^d; \theta) \quad \dots(8)$$

여기서  $F(B; \theta)$ 는 로지스틱 누적분포함수 또는 정규누적분포함수 등 임의의 누적확률분포 함수이다. 로지스틱 누적분포를 가정할 경우를 로짓(logit)모형, 정규누적분포를 가정할 경우를 프로빗(probit)모형이라고 한다.  $F(B; \theta)$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F(B; \theta) = F(\alpha + \beta x' + \beta_{bid} B) \text{ or } F(\alpha + \beta x' + \beta_{bid} \ln B) \quad \dots(9)$$

$\alpha$ : 상수항,  $\beta$ :  $x$ 의 계수 벡터,  $x'$ : 응답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변수의 벡터,  
 $\beta_{bid}$ :  $B$  또는  $\ln B$ 의 계수,  $B$ : 제시금액.

로짓모형이나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F(B; \theta)$ 의 모수들을 추정할 수 있고, 추정된 모수와 각 속성의 평균치를 이용하면 평균적 응답자의 제시금액  $B$ 에 대한 수락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수락확률을 적분하면 WTP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함수가 '0'에 수렴할 경우에는 WTP 분포가 오른쪽으로 무제한적으로 편향되게 됨으로써 평균값이 발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안된 평균 도출식이 절단 평균값(truncated mean)이다. 절단평균값을 도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E(WTP) = WTP_{truncated\ mean} = \int_0^{WTP_{max}} F(B; \theta) dB. \quad \dots(10)$$

### 3.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한 선행연구 검토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질문기법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김영 외(2004)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지불카드기법을 이용하여 안동민속축제의 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축제장에서 방문객 406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을 안동 지역민과 외부 거주민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안동지역민이 가구당 월 10,412원, 외부지역민이 8,679원으로 나타났으며 총 안동민속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는 연간 7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김규섭(2010)은 양천한약축제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양천한약축제 방문객을 지역주민과 외부인으로 나누어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였고,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평균지불의사금액은 25,400원, 외부인의 평균지불의사금액은 18,900원으로 도출하였으며 총 경제적 가치는 약 69억 원으로 추정하였다. 안정하(2013)는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유료화를 위한 방안으로 입장료 도입을 선택하고, 입장료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입장료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행사장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3,719원으로 나타났고,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는 9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 상황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때문에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채택한 선행연구들이 많다. 다음의 선행연구들은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하여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들이다.

박광서(2003)는 무형자원인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치평가방법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채택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이 가치평가의 방법론으로서 유용함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앞서 20명을 대상으로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한 후, 예비조사에서 나온 제시금액(2,500원~12,500원)을 토대로 장보고 축제의 방문객 215명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데이터를 제외하고 118개의 유효한 표본으로 장보고 축제의 평균 지불의사금액 7,829원을 도출하였으며 광주·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총 421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신백수(2005)는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대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연구방법론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제시금액을 100원~10,000원까지 8가지 가격대로 구분하였고, 본 조사를 축제 기간인 2005년 10월 10일~14일과 축제가 끝난 후인 2005년 11월 12일~11월 16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830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고,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5,574원으로 도출되었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총 경제적 가치는 약 2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우경(2012)은 지역축제의 계량적 가치 평가를 통해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개최를 위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실시하였다. 사전 예비조사를 거쳐 2011년 6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산 자인단오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효한 설문지 175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19,218원으로 나타났고, 방문객 수를 곱한 결과 경산 자인단오제의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주경(2015)는 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점을 비판하면서 예산 지원을 받는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하여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지역축제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전라북도 도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제시금액(5,000원~20,000원)을 도출하였다. 2015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라북도 도민들 3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306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18,744원으로 도출되었고 총 경제적 가치는 35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2-11〉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지역축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기법	추정보형	지불도구	자료수집
박광서 (2003)	장보고축제	이중양분	probit	소득세	면접조사
김영 외 (2004)	안동민속축제	지불카드	logit	기부금	면접조사
신백수 (200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이중양분	logit	입장료	면접조사
한상현 (2008)	부산국제영화제	이중양분	logit	기금	면접조사
이충기·김태균 (2010)	보령머드축제	이중양분	logit	기금	면접조사
김규섭 (2010)	영천한약축제	개방형	tobit	기금	면접조사
이성근·김규섭 (2011)	함양산삼축제	이중양분	logit	기금	면접조사
이우경 (2012)	경산 자인단오제	이중양분	logit	입장료	면접조사
안정하 (2013)	진주남강유등축제	개방형	tobit	입장료	설문조사
송운강 외 (2015)	화천산천어축제	이중양분	logit	입장료	온라인조사
이주경 (2015)	전주세계소리축제	이중양분	logit	기부금	면접조사

## 제3장 연구 설계

### 제1절 연구 대상지 현황

####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축제 현황

제주도 내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는 199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장성수·김종기, 2012),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주도에서도 많은 지역축제가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06)의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제시된 제주도 축제는 51개이며, 문화체육관광부(2016)에서 발간한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II:2014년 기준 실태분석’에서는 제주도 내 지역축제 수는 31개로 나타났다. 류정아(2017)가 2017년 5월 기준으로 재조사한 결과 지역축제의 개수가 65개로 집계되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2017)에서 발표한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지정한 지역 축제는 28개로 조사되었다.

초기 제주도 내 지역축제들은 전통문화, 향토 문화를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관 주도의 축제가 성행했으나, 2000년 이후 지역의 특산품과 자연환경을 소재로 하는 민 주도의 축제와 관 주도의 스포츠 축제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류정아, 2017). 제주도의 지역축제들은 이벤트성인 축제들이 대부분으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 문화와 전통의 보존 등 축제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 축제들과 차별성이 없어 축제 방문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관광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인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6).

제주도는 지역축제를 활용하여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고자 하였지만 타 지역과의 구조적인 차이와 차별성 없는 프로그램들로 인하여 축제들이 성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제주축제육성위원회에서는 제주 지역축제의 기반을 새로이 하고 제주형 대표 축제를 육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관광객을 축제로 유입하는 부분에서 육지의 축제들과 달리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광 효과와 단기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축제를 통해 제주의 정체성과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축제를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문화 확립, 지역 이미지 제고 등 제주도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축제들이 개최되어야 하며, 대규모 축제들보다 지역과 마을의 특성을 살린 소규모 축제들에 집중하여야 한다(류정아, 2017).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총 28개로 3개의 축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는 총 12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서귀포시에서는 총 13개의 축제가 개최된다. 다음의 <표 3-1>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다.

〈표 3-1〉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현황

구분	축제명	개최시기	예산(백만원)	방문객(천명)	축제종류
제주특별 자치도 (3개)	제주해너축제	9~10월	330	45	전통역사
	제주馬축제	10월	170	6	지역특성화
	탐라문화제	10월	1,200	160	전통역사
제주시 (12개)	탐라굿입춘굿	2월	100	18	전통역사
	제주들불축제	3월	1,185	335	생태자원
	제주왕벚꽃축제	3~4월	238	350	생태자원
	서사라 문화 거리축제	3~4월	20	10	생태자원
	우도소리축제	4월	30	16	지역특산물
	방선문축제	5월	29	3	전통역사
	삼양검은모래해변축제	7월	20	6	생태자원
	이호테우축제	7월	30	625	전통역사
	금능원담축제	7월	15	3	전통역사
	도두오래물축제	7~9월	29	15	생태자원
	추자도참굴비대축제	9월	80	3	지역특산물
	산지천 축제	9월	80	10	전통역사
서귀 포시 (13개)	제주유채꽃축제	4월	90	35	생태자원
	가파도청보리축제	4~5월	30	35	지역특산물
	한라산청정고사리축제	4월	64	20	지역특산물
	보목자리돔축제	5월	25	25	지역특산물
	쇠소깍축제	7월	29	15	생태자원
	표선해비지해변 하얀모래축제	8월	70	35	생태자원
	한여름밤 숨바천 청소년 영상문화축제	8월	22	2	생태자원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8월	40	8	생태자원
	서귀포칠십리축제	9월	288	140	문화예술
	덕수리전통민속 축제	10월	57	1	전통역사
	정의고을 전통민속재현축제	10월	50	25	전통역사
	최남단방어축제	11월	110	204	지역특산물
	성산일출축제	12.31 ~ 1.1	235	100	생태자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7).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 지역축제 총괄 표」 인용 후 연구자가 재편집

아래의 <표 3-2>을 보면 제주도에서는 생태 자연을 소재로 한 축제가 11개로 제일 많이 개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제주도의 지형적 특성과 관광객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에 서 관광객이 선호하는 목적지 중 생태자원과 관련된 곳이 많으므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하여 생태자연자원을 주제로 축제가 개최되지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축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류정아, 2017).

<표 3-2> 제주특별자치도 축제 소재별 현황

구분	생태자원	문화예술	전통역사	지역특산물	합계
축제 수	11	2	9	6	28
백분율	39.3	7.1	32.1	21.4	100.0

제주도의 기후의 특성상 제주도 내 지역축제는 월별로 고르게 분포되어있다. 상대적으로 여름철에 축제가 많이 개최되는 이유는 여름에는 휴가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고, 봄과 가을에는 관광주년을 고려한 것이라 분석된다.

<표 3-3> 제주특별자치도 월별 축제 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축제 수	0	1	3	4	2	0	5	3	4	4	1	1	28
백분율	0	3.6	10.7	14.3	7.1	0.0	17.9	10.7	14.3	14.3	3.6	3.6	100

## 2. 연구대상지 선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로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선정하였다. 관광객들은 관광지를 선택함에 있어 개인이 선호하는 속성을 가진 관광지를 선택하게 되는데(이진희, 2013), 관광지가 가진 자연적 매력성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선택함에 있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임화순·고계성, 2013). 가파도와 같은 섬 관광지에서 뛰어난 자연환경과 사회여건, 섬 지역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인심은 관광객의 매력을 이끄는 요인이 된다(임화순·고계성, 2006). 자연경관은 섬 관광객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최용복 외, 2012), 가

파도가 가진 청보리밭과 올레길, 해안도로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방문객을 섬으로 오게끔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개최지가 섬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타 축제들과 달리 축제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가파도를 들어가기 위해 선박요금을 지불한다는 점에서 축제 방문객들이 축제 입장료에 대해 잠재적인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개요

#### 1) 가파도의 개관

가파도(加坡島)는 북위 33°10'6", 동경 126°16'17"에 위치하고, 행정구역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해당하며, 대정읍 모슬포에서 남쪽으로 5.5km 해상에 있는 섬으로 제주도의 부속 도서 중 네 번째로 큰 섬이다(변경화·이정림, 2012). 처음에는 나라에서 소와 말을 기르던 목장으로 활용되었다가 현종 6년(1843)년에 우도와 함께 이주가 허가되었다<sup>2)</sup>. 가파도의 전체적인 모양은 넓게 펼쳐진 덮개모양으로 '개도(蓋島)'를 비롯하여 '개파도(蓋波濤)', '개을파지도(蓋乙波知島)', '더위섬', '더푸섬' 등으로도 불린다(이재언, 2017). 이 외에도 하멜이 제주도의 지명을 표기한 궤파트(Quelpart)는 단어가 가파도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있다<sup>3)</sup>.

가파도는 전형적인 농어촌마을로 섬의 특성상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였으나 밭농사에 적합한 해양성 기후로 인해 청보리를 비롯한 콩과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특히, 청보리는 특별한 재배방법이 없어도 잘 자랐기 때문에 주업이 어업인 가파도 주민들에게 적합한 작물이었다(이재언, 2017). 가파도에서 재배되는 청보리는 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높게 자라고 맥주나 식용으로 쓰이는 제주도 향토품종인 '향맥'으로, 가파도 전체 면적의 60~70%를 차지하는 56만㎡(17만평)의 평야에 재배되는 가파도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가파도의 주민등록 상 인구는 131세대로 남자 114명, 여자 113

2) 석주명(1968). 『제주도수필』 보진재. "가파도는 모슬포(募瑟浦) 전방(前方) 대양(大洋) 중에 주위 10여리의 평탄한 섬인데 원래 무인도로서 국유(國有) 우마의 목축장이었던 것이 현종(憲宗) 8년(1843년)에 우도와 함께 비로소 이주가 허가되었다."

3) 석주명(1968). 『제주도수필』 보진재. "서기 Hendrik Hamel의 표류기(1668년)에 기재된 QuelPart란 이 가파도를 지칭한 것이라고도 보겠고 후일 그대로 제주도의 양명(佯名)으로 되고 말았다."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거주민은 170여 명으로 조사된다. 대부분의 연령층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는 100여 명 뿐으로, 가파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시급하였다<sup>4)</sup>.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9년 ‘가파도 방문의 해’를 지정하였다. 가파도 주민들 또한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파리장을 주축으로 가파도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제1회 가파도 청보리 축제’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일원에서 개최되었고, 축제를 통해 가파도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 2)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현황

가파도는 축제가 개최되기 전인 10년 전에는 1년에 3만 명이 방문하는 제주도의 부속도서 중 하나일 뿐,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섬이었다, 그러나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개최한 후로 연간 관광객 15만 명이 다녀가는 관광지로 부상하였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순수 가파도 주민들로 구성된 가파도축제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민주도의 소규모 지역축제이다. 마을임원, 개발위원회, 노인회 등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는 10년째 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중장년층의 마을사람들이 운영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2009년 제1회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맞이하여 청보리밭 산책로를 개장하였고, 2010년 3월에 올레 10-1코스를 개장하면서 축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였다. 축제 초기에는 2~5일간 축제를 개최하였지만, 관광객의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축제를 한 달간 개최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 5,575명에서 2012년 25,000명으로 5배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4〉에 나타난 1회부터 10회까지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보조금이 축제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과 2018년은 축제 예산의 50%가 지자체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있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절반 이상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있다. 2011년과 2015년에는 축제 예산의 100%가 보조금으로 지원되어 가파도 청보리 축제 예산

4) 이다빈, “자연이 만들고, 예술이 거들고, 사람이 웃는 섬, 가파도”. 조선일보. 2018.04.20

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10년간 가파도 청보리 축제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연도	기간	방문객	예산(지원액)
1회	2009	3월 28일~29일(2일간)	1,116	-
2회	2010	4월 2일~5일(4일간)	4,039	40(시비 20)
3회	2011	5월 6일~8일(3일간)	5,575	10(도비 10)
4회	2012	4월 21일~5월 20일(한달간)	25,000	70(시비 50)
5회	2013	4월 13일~5월 5일(23일간)	29,000	21(시비 15)
6회	2014	4월 19일~5월 11일(23일간)	25,000	28(시비 20)
7회	2015	4월 11일~5월 10일(한달간)	41,000	14(도비 14)
8회	2016	4월 10일~5월 10일(한달간)	35,000	6(0)
9회	2017	4월 8일~5월 7일(한달간)	31,000	30(0)
10회	2018	4월 14일~5월 14일(한달간)	-	30(도비 15)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및 구글(www.google.co.kr) 검색 후 연구자 재편집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청보리밭 걷기, 소원기원 돌탑쌓기, 성황당에서 소원빌기 등이 있고, 참가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말에 진행되고 있다. 청보리밭 연날리기 프로그램의 경우 1회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프로그램으로 체험비 5,000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유료 프로그램이었지만, 2018년부터 주말에 한해서 선착순 50명에게 무료연을 배부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프로그램들은 10년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 기획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다음의 〈표 3-5〉을 보면 10년간 축제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표 3-5〉 10년간 가파도 청보리 축제 프로그램 현황

회	연도	프로그램
1회	2009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가파도 역사·문화·관광탐방, 삶은 보말까기 대회, 전통 낚시 대회, 가파도 어장체험, 대정아줌마와 함께하는 난타 동아리 공연, 청보리밭 걷기, 보리피리 만들기 체험, 연날리기, 소망기원 돌탑쌓기, 섬속의 섬 가파도 탐방, 가파도 어장체험 및 해산물 무료 시식, 전통 낚시대회, 보말까기 대회, 난타공연 등
2회	2010	청보리밭 걷기, 청보리밭 연날리기, 청보리밭 속 보물찾기, 가파도 어장체험, 소라구이 무료 시식, 전통놀이 체험, 고인돌 탐방, 전통놀이 체험장, 소망기원 돌탑쌓기, 등
3회	2011	청보리밭 걷기, 청보리밭 보물찾기, 문어잡이, 보말까기, 소라구이 무료 시식, 고인돌 탐방, 해녀 물질 관람 등
4회	2012	청보리밭 걷기, 연날리기, 청보리 염색체험, 보리비빔밥 만들기, 전통 연 만들기 및 연날리기 체험, 바닷잡이 및 보말잡이 등
5회	2013	청보리밭 걷기, 청보리마라톤대회, 커플 자전거 대회, 해조류보리비빔밥 만들기, 연날리기, 소망기원 돌탑쌓기, 고무신 보리쌀 무게 맞추기, 나도 어부다, 문어 손으로 잡기, 보리피리 만들기, 보리밭 연날리기 등
6회	2014	청보리밭 걷기, 커플 자전거 대회, 보말 빨리 까기 대회, 소라잡기체험, 미숫가루 속 보물찾기 등
7회	2015	청보리밭 걷기, 소망기원 돌탑 쌓기, 고무신에 담은 보리쌀 무게 맞추기, 마른미역 먹기, 보리밭 연날리기, 올레길 보물찾기, 커플자전거 대회, 소라 멀리 던지기 등
8회	2016	청보리밭 걷기, 10-1 올레길 보물찾기, 보리밭 연날리기, 커플 자전거 대회, 소라잡기 체험 등
9회	2017	축제 프로그램 없음
10회	2018	청보리밭 걷기, 소망기원 돌탑쌓기, 성황당에서 소원 빌기, 연날리기 시연, 보리밭 연날리기, 10-1 올레길 보물찾기, 보말까기 대회, 어장체험 행사, 소라구이 무료 시식, 나도 가수다, 사진전시회 등

출처 : 가파도 청보리 축제 팸플릿 및 구글(www.google.co.kr) 검색 후 연구자 재편집

2016년까지 모슬포항에서 가파도로 가는 여객선을 운항했었지만, 운진항 터미널의 리모델링으로 2017년부터 여객항이 운진항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모슬포에서 가파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되었고,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방문객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더 많은 방문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축제 기간에는 여객선을 증편하여 왕복 8번 운항하고 있다. 또한, 축제 기간에 급증하는 방문객들을 적절히 수용하기 위하여 가파도의 입도시간과 출도시간을 지정하여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고정하였다.

〈표 3-6〉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객선 시간

입도시간		출도시간	
축제기간 외	축제기간	축제기간 외	축제기간
9:00	09:00	11:20	11:20/12:00
11:00	09:40	14:20	13:00
14:00	10:20	16:20	13:50
16:00	11:00	왕복불가	14:40
-	11:40		15:20
-	12:40		16:00
-	13:30		16:40
-	14:20		17:00
-	15:00		왕복불가
-	15:40		
-	16:20		
-	16:40		

출처 : 가파도 청보리 축제 팸플릿

2009년 선박 요금은 성인 기준 10,000원, 소인 5,000원 이였고, 2014년 선박 요금은 성인 11,400원, 소인 6,3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해가 바뀌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선박요금도 같이 상승하였다. 2018년 현재는 성인 일반은 왕복 요금과 해상공원 입장료를 합쳐서 13,100원이며, 도민은 10,700원이다. 청소년 일반은 12,900원이며, 도민은 성인과 같은 10,700원이고, 소인 일반은 6,600원, 소인 도민은 5,400원의 요금을 책정하고 있다. 연도

별 가파도 여객선의 요금과 여객항의 변화는 다음의 <표 3-7>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표 3-7> 10년간 가파도 여객선 요금과 여객항 변화

(단위 : 원)

회	연도	선박료	여객항
1회	2009	성인 : 10,000 소인 : 5,000	모슬포항
2회	2010	성인 : 10,000 소인 : 5,000	모슬포항
3회	2011	성인 : 10,000 소인 : 5,000	모슬포항
4회	2012	성인 : 10,000 소인 : 5,000	모슬포항
5회	2013	성인 : 10,000 소인 : 5,000	모슬포항
6회	2014	일반 : 11,400(성인) / 6,300(소인) 도민 : 10,000(성인) / 5,000(소인)	모슬포항
7회	2015	일반 : 11,400(성인) / 6,300(소인) 도민 : 10,000(성인) / 5,000(소인)	모슬포항
8회	2016	일반 : 12,400(성인) / 6,200(소인) 도민 : 10,000(성인) / 5,000(소인)	모슬포항
9회	2017	일반 : 13,100(성인) / 6,600(소인) 도민 : 10,700(성인) / 5,400(소인)	운진항
10회	2018	일반 : 13,100(성인) / 6,600(소인) 도민 : 10,700(성인) / 5,400(소인)	운진항

자료 : 네이버(www.naver.com) 검색

## 제2절 조사 설계

### 1. 설문지 설계

조건부가치측정법은 설문조사의 설계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문지 작성 절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NOA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문지를 설계하였고, 설문지 작성 절차는 아래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설문지 작성 절차

### 1) 가상시나리오 설정

본 연구에서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장료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를 묻기 위해 가상 상황을 설정하였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의의와 개최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지자체로부터 축제 예산이 부족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축제의 자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입장료를 받고자 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대체재화로 현재 축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축제들을 제시하였고, 응답자들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입장료가 가파도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가상 시나리오는 다음의 (그림 3-2)와 같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2009년 '제1회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년째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최근 3년간 지자체로부터 축제 예산을 지원 받지 않아 축제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장료」를 받고자 합니다.

\* '진주남강유등축제', '함평나비대축제' 등은 축제의 예산 지원이 감소하면서 축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 입장료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 ▶ 행사장 안전 관리
- ▶ 방문객 편의시설(간이 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 ▶ 축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 ▶ 가파도 환경보호 활동

(그림 3-2) 본 연구의 가상 시나리오

### 2) 지불수단 선택

조건부가치추정법 설문지 설계에 있어 지불수단을 선택할 때, 응답자들이 자신의 지불의사를 쉽게 나타낼 수 있도록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불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광서, 2003). 응답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상적인 지불수단보다 응답자들이 현실에서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불수

단에는 세금, 입장료, 수수료, 기부금, 등이 있다. 세금이나 입장료, 수수료 등은 강제적인 지불수단으로 응답자들이 대상 재화를 위해 무조건 지불해야하지만, 지불수단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 무응답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 자발적인 수단인 기부금은 응답자들이 무임승차를 할 확률이 높아져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연구자들에게 추천하고 있지 않다(한국개발연구원,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제적이고 현실적인 지불수단인 입장료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의 지불수단으로 입장료를 채택하였다.

### 3) 지불의사 유도방법 선택

본 연구에서는 NOAA의 가이드라인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초기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를 예/아니오의 대답을 통해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제시금액에 대해 '예'와 '아니오'로 대답한다는 점에서 무응답률과 무임승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한번 물어보는 단일양분선택형 질문법과 첫 번째 제시금액에 대한 응답에 따라 한번 더 물어보는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를 한 번만 질문하는 단일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응답자들이 어떠한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실제 금액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실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조성하여 응답자들의 선호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oyle et al., 1994; Buckland et al., 1999; 이충기, 2005; 한상현, 2008). 이 때문에 단일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전략적 편의와 무응답률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응답자들에게 제시되는 제시금액의 범위와 개수들이 적절히 선정되어야 하며, 다른 질문방식에 비해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높은 분석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수의 표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Hanemann(1984) 등이 제안한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은 초기 제시금액에 대해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보다 같거나 작으면 '예'를 선택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제시금액의 2배의 금액을 제시한다. 만약, 응답자가 초기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없거나 본인의 지불의사금액보다 커서 '아니오'라고 응답했다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초기 금액의 1/2배 금액을 제시한다. 이러한 설문 자료를 토대로 제시금액과 '예'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평균 지불

의사금액을 추정하게 된다(박광서, 2003).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두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과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초기 제시금액에 대한 대답이 두 번째 제시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출발점 편이에 노출되어 있지만, 단일양분선택형 질문법보다 필요한 표본 수가 적어 통계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Hanemann et al, 1991).

양분선택형 질문법은 네 번, 세 번 등에 걸쳐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삼중경계 양분선택형 질문법(triple-bounded)과 같은 다중경계 모형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추가 질문은 응답자의 지불의사금액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지불의사금액의 범위를 좁히므로 모형에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지만, 세 번 질문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내적 일관성을 해쳐 전략적 편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고, 통계적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태호, 2007; Cooper and Hanemann, 1995; Hanemann and Kanninen, 1999).

#### 4) 설문조사기법의 선정

조건부가치측정법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응답자들에게 지불의사금액을 유도하므로, 응답자들이 가상 시나리오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가 연구 결과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조건부가치측정법 연구에서는 설문조사기법으로 대인면접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NOAA 패널의 가이드라인에서도 추천하고 있다. 대인면접은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용이하며, 복잡한 질문을 신속적으로 할 수 있어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설문조사에 적합하다. 또한, 대인면접은 사진이나 팸플릿 등 시각적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표본 통제의 가능성이 커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선정할 수 있다. 설문조사원이 1:1로 면접하기 때문에 항목별 무응답률을 줄일 수 있고, 설문 전체에 대한 응답률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 5) 제시금액 설계

양분선택형 질문법을 활용한 조건부가치측정법 연구에서는 제시금액의 분포에 따라 문항별 응답과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제시금액의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Hanemann and Kanninen(1999)은 양분선택형 질문법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로 초기 제시금액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전조사를 실시하기 전 표본을 선정할 때

본 설문조사와 같이 무작위로 추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을 고려하여 편의적으로 추출할 수도 있다. 또한, 본 설문조사의 지불의사 유도방법을 양분선택형으로 하더라도 사전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도출된 지불의사금액으로 제시금액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한국개발연구원(2008)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제시금액은 사전조사 결과 얻어진 지불의사금액 분포의 15%에서 85% 범위에서 4가지에서 6가지의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고 나타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제주도민과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객 대상으로 각 30부씩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sup>5)</sup>. 그 다음 사전조사를 통해 얻은 지불의사금액의 15%~85%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제시금액을 설정하였다.

〈표 3-8〉 제시금액 설계

제시금액(원)	표본(명)	백분율(%)	누계(%)
1,000	80	20	20
2,000	80	20	40
3,000	80	20	60
4,000	80	20	80
5,000	80	20	100
합 계	400	100	

#### 6) 발생할 수 있는 편의의 해결방안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설문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표 3-9〉와 같이 해결방안을 적용하였다. 출발점 편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파도 청보리 축제에 대한 정보와 현실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지불수단의 편의를 없애기 위하여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수단으로 입장료를 사용하였고, 응답자들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지 안에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사진과 현황을 제시하여 정보 편의를 줄이고

5) 박광서(2003)은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고태호(2007)는 30부를 실시하였다.

자 하였다. 가설적 편의를 줄이기 위해선 비시장재화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축제를 경험한 방문객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숙련된 조사원을 투입하여 순정적 편의를 최소화하였다.

〈표 3-9〉 편의를 해결방안

편의	해결방안	본 연구에 적용
출발점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가 설계되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 설계 및 사전조사 실시</li> </ul>
지불수단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지불수단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불수단으로 입장료 사용</li> </ul>
전략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 질문법이 아닌 양분선택형 질문법 선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법 적용</li> </ul>
정보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재화에 대한 정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지에 가과도 청보리 축제의 사진 및 현황 제시</li> </ul>
가설적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적인 지불수단 제시</li> <li>▪ 현실적인 가상 시나리오 제공 및 응답자가 비시장재화에 대한 정보와 경험이 있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인 지불수단인 입장료 사용</li> <li>▪ 현실적인 가상 시나리오 제시 및 축제를 경험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함</li> </ul>
순종적 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련된 조사원 투입</li> </ul>

## 2. 설명변수 및 연구모형

가과도 청보리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을 이용하여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설명변수를 설정하였다. 박광서(2003)와 안정하(2013)는 연령,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만 설명변수로 선정하였고, 신백수(2005)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해 설명변수로 축제의 이용형태, 축제의 경제효과를 비롯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선정하였다. 김규섭(2010)과 이우경(2012)은 설명변수로 축제 인지도, 방문횟수, 만족도, 재방문의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주경(2015)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축제 인지여부 및 방문여부, 축제에 대한 관심도를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표 3-10〉 선행연구의 설명변수

연구자	설명변수
박광서(2003)	연령,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소득수준
신백수(2005)	이용형태, 경제효과, 직업, 나이, 성별, 거주지, 소득, 교육수준
김규섭(2010)	방문횟수, 성별, 연령, 직업, 월소득수준, 거주지, 축제 인지도, 만족도, 재방문 의사
이우경(2012)	방문횟수, 성별, 연령, 직업, 월소득수준, 거주지, 축제 인지도, 만족도, 축제의 지속추진
안정하(2013)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소득, 거주지
이주경(2014)	나이, 성별, 거주지, 교육수준, 소득, 축제 인지여부 및 방문여부, 축제 관심 정도

자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 재구성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축제 입장료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방문객 행태와 축제 관련 정보,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방문객 행태에는 축제 방문 경험(VIS), 축제 재방문 의사(REV),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SAT1), 축제의 편의시설 만족도(SAT2),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SAT3)로 구성되어 있다. 축제 관련 정보로는 축제에 대한 정보 인지 유무(IFM) 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GND), 나이(AGE), 거주지(PLA), 교육수준(EDU), 직업(JOB), 소득(ICM)으로 구성하였다.

〈표 3-11〉 본 연구의 설명변수

구분	변수	변수구성
방문객 행태	축제방문경험 (VIS)	축제 방문 경험 (1=있다, 2=없다)
	축제 재방문 의사 (REV)	축제 재방문 의사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프로그램 만족도 (PST)	축제의 프로그램 만족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편의시설 만족도 (IST)	축제의 편의시설 만족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전반적인 만족도 (SAT)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축제 관련 정보	축제 인지도 (IFM)	축제에 대한 정보 인지유무 (1=예, 2=아니오)
인구통계 학적 특성	성별 (GND)	응답자의 성별 (1=남성, 2=여성)
	연령 (AGE)	응답자의 연령 (1=10대 이하, 2=20대, 3=30대, 4=40대, 5=50대, 6=60대 이상)
	거주지 (PLA)	응답자의 거주지 (1=도내, 2=도외)
	교육수준 (EDU)	응답자의 최종학력 (1=중학교 졸업 이하, 2=고등학교 졸업, 3=대학 재학 중, 4=대학교 졸업, 5=대학원 졸업)
	직업 (JOB)	응답자의 직업 (1=회사원, 2=전문직, 3=공무원, 4=서비스직, 5=생산직, 6=판매·영업직, 7=농축수산업, 8=자영업, 9=주부, 10=학생, 11=무직, 12=기타)
소득 (ICM)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1=100만원 미만, 2=100~200만원 미만, 3=200~300만원 미만, 4=300~400만원 미만, 5=400~500만원 미만, 6=500만원 이상)	

설명변수를 적용한 본 연구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모형은 다음의 식(11)과 같다.

$$Y = \alpha + \beta_1 VIS + \beta_2 REV + \beta_3 PST + \beta_4 IST + \beta_5 SAT + \beta_6 IFM + \beta_7 GND + \beta_8 AGE + \beta_9 PLA + \beta_{10} EDU + \beta_{11} JOB + \beta_{12} ICM + \beta_{bid} \ln B \quad \dots \text{식(11)}$$

$$Y = 1, 0$$

$\alpha$	: 상수항	$\beta$	: 변수의 계수 벡터
VIS	: 축제방문경험	REV	: 축제 재방문 의사
PST	: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	IST	: 축제 편의시설 만족도
SAT	: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	IFM	: 축제 인지도
GND	: 성별	AGE	: 연령
PLA	: 거주지	EDU	: 교육수준
JOB	: 직업	ICM	: 소득수준
$\beta_{bid}$	: $\ln B$ 의 계수	$B$	: 제시금액

## 제4장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사용될 제시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도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도민만 대상으로 했을 시 표본 및 제시금액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어 4월 21일 가파도 청보리 축제장에서 축제 방문객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결과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의 초기 제시금액을 도출하여 2018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축제 행사장인 가파도 여객 터미널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신백수(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축제를 참가하지 않은 사람을 입장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경험한 방문객을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NOAA 패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숙련된 조사원들이 응답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1:1 면접조사로 이루어졌고, 설문조사에 대한 방법과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400부의 설문지 중 382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4-1〉 조사방법 및 내용

구분	내용		
	사전조사	사전조사	본조사
조사연월일	2018년 4월 18일~19일	2018년 4월 21일	2018년 4월 27일~28일
조사방법	1:1 대면조사		
표본	도민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객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객
표본 수	30	30	400

## 제1절 기초통계분석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1)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분포

가파도 청보리 축제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아래의 <표 4-2>와 같이 '남성'이 173명(45.4%), '여성'이 209명(54.7%)으로 여성이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121명(31.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60대' 91명(23.8%), '40대' 79명(20.7%), '20대 이하'가 22명(5.8%), '30대'가 69명(18.1%)으로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중장년층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방문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보리라는 지역 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상품을 기대하고, 청보리밭과 올레길 등 가파도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중장년층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은 아래의 <표 4-3>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표 4-2> 응답자의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73	45.4
	여성	209	54.7
	합계	382	100.0

<표 4-3> 응답자의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연령	20대 이하	22	5.8
	30대	69	18.1
	40대	79	20.7
	50대	121	31.7
	60대	91	23.8
	합계	382	100.0

2) 응답자의 거주 지역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경기권'이 131명(3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제주시'가 90명(23.6%)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도외 지역에서 서울·경기권의 인구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도내 지역에서는 제주시의 인구수가 서귀포시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다음으로는 '서귀포시' 54명(14.1%), '경상권' 46명(12.0%), '전라권' 29명(7.6%), '충청권' 19명(5.0%), '강원권' 11명(2.9%), '기타' 2명(0.5%)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와 도외로 구분하면 '도내 관광객'은 144명(37.7%), '도외 관광객'은 238명(62.3%)으로 도외 관광객이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 응답자의 거주 지역

구분		빈도(명)	비율(%)
거주지	제주시	90	23.6
	서귀포시	54	14.1
	서울·경기권	131	34.3
	강원권	11	2.9
	충청권	19	5.0
	전라권	29	7.6
	경상권	46	12.0
	기타	2	0.5
	합계	382	100.0

〈표 4-5〉 도내·도외 방문객 분포 현황

구분		빈도(명)	비율(%)
거주지	도내	144	37.7
	도외	238	62.3
	합계	382	100.0

### 3) 응답자의 최종학력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보면 '대학교 졸업'이 175명(45.5%)으로 응답자의 반이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이 120명(31.4%)으로 두 번째로 많았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층 중 중장년층이 많은 것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다음으로는 '대학원 졸업' 59명(15.4%), '중학교 졸업 이하' 19명(5.0%), '대학 재학 중' 10명(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응답자의 최종학력

구분		빈도(명)	비율(%)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9	5.0
	고등학교 졸업	120	31.4
	대학 재학 중	10	2.6
	대학교 졸업	174	45.5
	대학원 졸업	59	15.4
	합계	382	100.0

### 4) 응답자의 직업

응답자의 직업 분포는 '회사원'이 87명(22.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가 76명(19.9%)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전문직'이 54명(14.1%), '자영업'이 34명(8.9%), '공무원'이 31명(8.1%), '서비스직'이 28명(7.3%), '무직'이 19명(5.0%), '기타'가 14명(3.7%), '농축수산업'이 12명(3.1%), '판매·영업직'이 11명(2.9%), '학생'이 10명(2.6%), '생산직'이 6명(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7〉 응답자의 직업

구분		빈도(명)	비율(%)
직업	회사원	87	22.8
	전문직	54	14.1
	공무원	31	8.1
	서비스직	28	7.3
	생산직	6	1.6
	판매·영업직	11	2.9
	농축수산업	12	3.1
	자영업	34	8.9
	주부	76	19.9
	학생	10	2.6
	무직	19	5.0
	기타	14	3.7
	합계	382	100.0

5) 응답자의 월 평균소득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91명(23.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66명(17.3%), 400~500만원이 58명, 100만원 미만이 57명(14.9%) 순으로 나타났다. 100만원~2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은 55명(14.4%)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음의 〈표 4-8〉을 참고하면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이 고르게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구분		빈도(명)	비율(%)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57	14.9
	100~200만원 미만	55	14.4
	200~300만원 미만	91	23.8
	300~400만원 미만	66	17.3
	400~500만원 미만	58	15.2
	500만원 이상	55	14.4
	합계	382	100.0

## 2. 방문객 행태

### 1) 가파도 및 축제 방문 경험

가파도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00명(26.2%)이며, 가파도 방문이 처음인 응답자는 282명(73.8%)로 나타났다. 또한, 축제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9명(12.8%)이고, 축제 방문이 처음인 응답자는 333명(87.2%)으로 보아 가파도를 과거에 방문한 경험은 있어도 축제는 처음 경험해보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가파도 및 축제 방문 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가파도 방문 경험	있다	100	26.2
	없다	282	73.8
	소계	382	100.0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 경험	있다	49	12.8
	없다	333	87.2
	소계	382	100.0

## 2)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 목적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방문한 목적 중 가장 큰 이유는 ‘가파도의 자연경관 감상을 위해서’가 215명(56.3%)으로 응답자의 절반이 청보리라는 축제 주제에 부합하게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이와 같은 방문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파도의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한번쯤 축제를 방문해보고 싶어서’가 86명(22.5%)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으로 축제를 알게 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축제를 방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0〉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 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방문목적	가파도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서	215	56.3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19	5.0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45	11.8
	교육적인 목적으로	5	1.3
	한번쯤 축제를 방문해보고 싶어서	86	22.5
	기타	12	3.1
	합계	382	100.0

## 3) 축제 동행자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동행자에 관한 조사 결과 가족 및 친지와 방문한 응답자가 135명(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 함께 방문한 응답자가 114명(29.8%)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단체에서 방문한 응답자가 70명(18.3%), 직장동료와 함께 방문한 응답자가 50명(13.1%), 혼자 방문한 응답자가 6명(1.6%) 순으로 나타났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가족 방문객이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축제추진위원회는 남녀노소 연령대에 불문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11〉 축제 동행자

구분		빈도(명)	비율(%)
동행자	혼자	6	1.6
	가족·친지	135	35.3
	친구	114	29.8
	직장동료	50	13.1
	단체	70	18.3
	기타	7	1.8
	합계	382	100.0

4)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알게 된 경로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알게 된 경로를 분석하면 주변지인이 124명(32.5%), 인터넷이 107명(28.0%), TV·라디오 등 언론매체가 74명(19.4%), 여행사·항공사가 26명(6.8%), 기타가 19명(5.0%), 팸플릿 등 홍보자료가 12명(3.1%), 현수막·광고탑이 7명(1.8%)으로 방문객의 주 연령대가 40대~60대인만큼 주변 지인으로부터 축제에 대한 개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축제를 알게 된 경로

구분		빈도(명)	비율(%)
축제를 알게 된 경로	TV·라디오 등 언론매체	74	19.4
	인터넷	107	28.0
	팸플릿 등 축제 홍보자료	12	3.1
	주변 지인	124	32.5
	여행사·항공사	26	6.8
	SNS	13	3.4
	현수막·광고탑	7	1.8
	기타	19	5.0
	합계	382	100.0

### 5) 축제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

축제의 만족도를 분석 결과 프로그램 만족도와 편의시설 만족도는 각각 평균 3.02와 3.08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에 대한 응답자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16으로 응답자의 절반은 가파도 청보리 축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축제의 재방문 의사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평균 3.57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대체로 축제를 다시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축제에 만족할수록 축제를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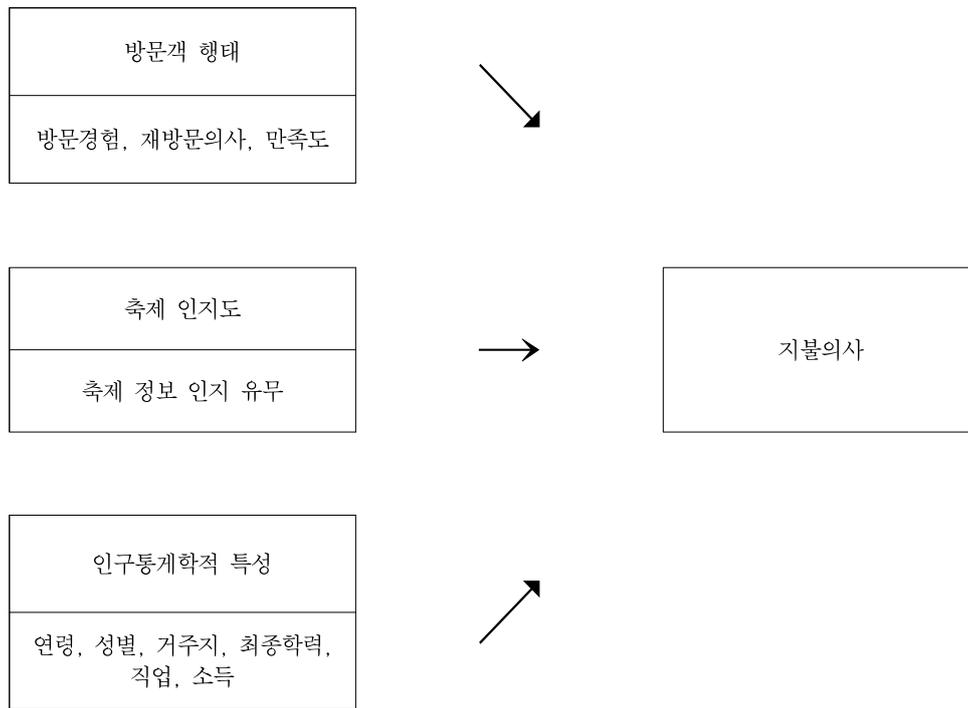
〈표 4-13〉 축제 만족도와 재방문 의사

구분	조사자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프로그램 만족도	382	3.02	0.896
편의시설 만족도	382	3.08	0.910
전반적인 만족도	382	3.16	0.929
재방문의사	382	3.57	0.933

## 제2절 경제적 가치추정

### 1.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의 (그림 4-1)과 같다.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축제방문경험(VIS), 재방문의사(REV), 프로그램 만족도(PST), 편의시설 만족도(IST), 전반적인 만족도(SAT), 축제 정보 인지 유무(IFM), 성별(GND), 거주지(PLA), 최종학력(EDU), 직업(JOB), 소득(ICM)을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방문객 행태와 축제 인지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지불의사 금액이 달라지며 제시금액에 대한 수락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림 4-1)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지불의사금액 분석 모형

#### 1)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분석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응답률은 다음의 <표 4-14>와 같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에 대한 제시금액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수락여부를 보면 제시금액 1,000원에 대해 'YES-YES'가 45.9%, 'YES-NO'가 31.1%, 'NO-YES'가 9.5%, 'NO-NO'가 13.5%로 나타났다. 제시금액 2,000원에 대해서는 'YES-YES'가 13.3%, 'YES-NO'가 25.3%, 'NO-YES'가 40.0%, 'NO-NO'가 21.3%로 나타났다. 제시금액 3,000원의 수락여부를 보면 'YES-YES'가 9.6%, 'YES-NO'가 35.6%, 'NO-YES'가 24.7%, 'NO-NO'가 30.1%로 나타났다. 제시금액 4,000원에 대해 'YES-YES'가 8.8%, 'YES-NO'가 27.5%, 'NO-YES'가 42.5%, 'NO-NO'가 21.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시금액 5,000원에 대해서는 'YES-YES'가 5.0%, 'YES-NO'가 31.3%, 'NO-YES'가 27.5%, 'NO-NO'가 36.3%로 나타났다.

〈표 4-14〉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응답률

제시금액	수락여부	표본 수	비율
1,000	YES-YES	34	45.9
	YES-NO	23	31.1
	NO-YES	7	9.5
	NO-NO	10	13.5
소계		74	100.0
2,000	YES-YES	10	13.3
	YES-NO	19	25.3
	NO-YES	30	40.0
	NO-NO	16	21.3
소계		75	100.0
3,000	YES-YES	7	9.6
	YES-NO	26	35.6
	NO-YES	18	24.7
	NO-NO	22	30.1
소계		73	100.0
4,000	YES-YES	7	8.8
	YES-NO	22	27.5
	NO-YES	34	42.5
	NO-NO	17	21.3
소계		80	100.0
5,000	YES-YES	4	5.0
	YES-NO	25	31.3
	NO-YES	22	27.5
	NO-NO	29	36.3
소계		80	100.0

가과도 청보리 축제의 입장료 지불에 대한 최초 제시금액, 2배 제시금액, 0.5배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확률은 다음 <표 4-15>와 같다.

<표 4-15> 제시금액별 지불의사 확률

(단위 : 명, %)

최초 제시금액	지불의사		2배 제시금액	지불의사		0.5배 제시금액	지불의사	
	지불	거부		지불	거부		지불	거부
1,000	57 (77.0)	17 (23.0)	2,000	34 (59.6)	23 (40.4)	500	7 (41.2)	10 (58.8)
2,000	29 (38.7)	46 (61.3)	4,000	10 (34.5)	19 (65.5)	1,000	30 (65.2)	16 (34.8)
3,000	33 (54.2)	40 (54.8)	6,000	7 (21.2)	26 (78.8)	1,500	18 (45.0)	22 (55.0)
4,000	29 (36.3)	51 (63.8)	8,000	7 (24.1)	22 (75.9)	2,000	34 (66.7)	17 (33.3)
5,000	29 (36.3)	51 (63.8)	10,000	4 (13.8)	25 (86.2)	2,500	22 (43.1)	29 (56.9)
합계	177 (46.3)	205 (53.7)	합계	63 (35.4)	115 (64.6)	합계	111 (54.1)	94 (45.9)

최초 제시금액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5가지의 금액을 제시하였다. 최초 제시금액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하는 응답자는 177명(46.3%), 지불할 의사가 없는 응답자는 205명(53.7%)로 나타났다. 최초 제시금액의 2배 제시금액에 대해서 63명(35.4%)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나타난 반면 115명(35.4%)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0.5배의 제시금액의 경우 111명(54.1%)는 지불하고자 하였으며, 94명(45.9%)는 지불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제시금액별로 제시금액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지불의사가 낮아지며, 상대적으로 2배 제시금액의 지불의사보다 0.5배 제시금액의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불할 의사가 없는 이유

축제에 대한 입장료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67명 중 25명(37.3%)이 ‘축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입장료를 받는 자체가 싫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축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행사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기타’가 15명(22.4%)으로 나타났는데 기타를 응답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가파도로 들어가기 위해 지불하는 선박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지불의사가 없는 응답자들은 선박요금과 입장료를 동일시하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 그리고 가파도의 선박요금은 관광객 13,100원, 도민 10,700원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우도의 선박요금(성인 8,500원)과 비교하였을 때 가파도의 선박요금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선박요금을 비싸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다음으로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유지가 나에게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응답이 9명(13.4%)으로 나타났고, ‘지역축제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가 8명(11.9%), ‘이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가 5명(7.5%)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은 아래의 <표 4-16>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표 4-16> 지불의사가 없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유지가 나에게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서	9	13.4
축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입장료를 받는 자체가 싫어서	25	37.3
입장료를 받는다고 축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의심스러워서	4	6.0
지역축제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8	11.9
제시된 입장료의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1.5
이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5	7.5
기타	15	22.4
합계	6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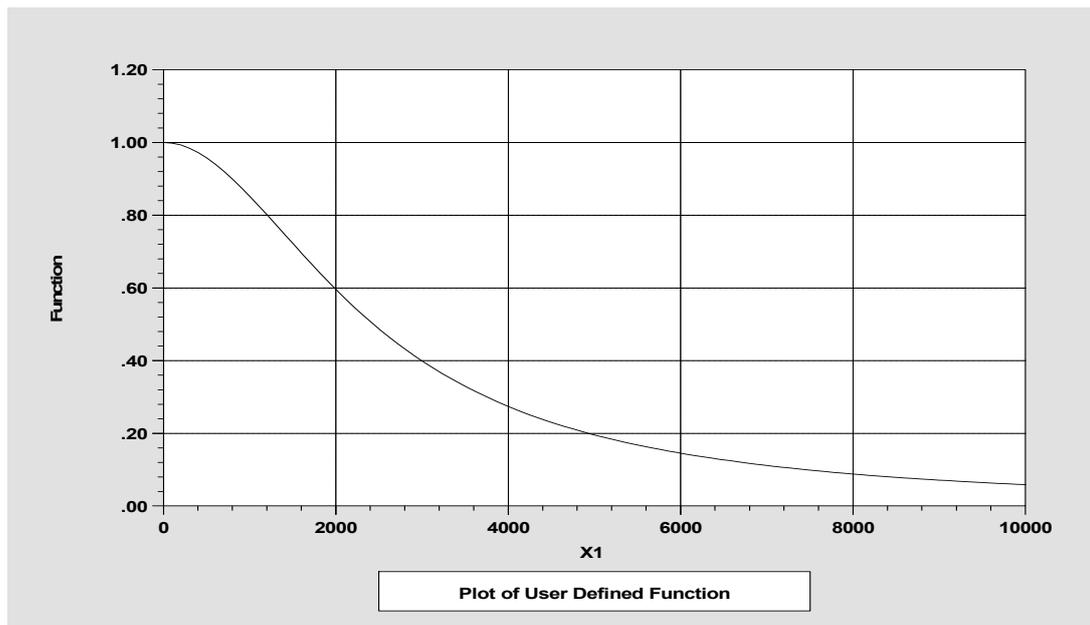
### 3) 지불의사금액 추정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추정법을 이용하여 이중양분선택형을 이용한 DBDC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가파도 청보리 축제 입장료의 평균 지불의사금액은 3,262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4-17〉 평균 지불의사금액 추정 결과

구분	평균 WTP
평균 WTP	3,262원

DBDC 모형으로 도출한 지불의사금액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의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DBDC모형 지불의사금액 함수 추정 그래프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 모형의 분석 결과,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입장료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축제 방문 경험'과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REV(축제 재방문의사)와 PST(축제 프로그램 만족도)는 99% 수준 하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 재방문 의사(REV)의 경우 추정계수의 부호가 양(+)<sup>1</sup>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재방문 의사가 높을수록 제시금액을 수락(YES)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PST)의 경우에도 추정계수의 부호가 양(+)<sup>1</sup>의 값을 나타낸다.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 높을수록 제시금액에 대해 수락(YES)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축제를 만족할수록 입장료를 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LBD(제시금액의 log치)<sup>2</sup>는 추정계수의 부호가 음(-)<sup>1</sup>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높은 금액을 제시할수록 수락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시금액에 대해 NO를 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표 4-18>과 같다.

<표 4-18> 분석 모형 추정 결과

구분	추정계수	P-value
CONSTANT	5.019	0.005**
LBD	-0.949	0.000**
REV	0.444	0.001**
PST	0.414	0.003**
GED	-0.352	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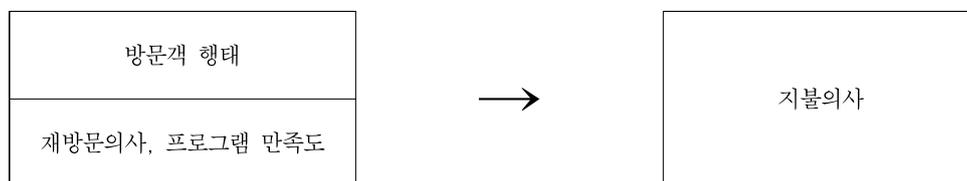
주1 : LBD는 제시금액의 log치임

주2 : \*\* 99%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본 연구는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모형에 들어갈 설명변수를 선정하고 logit 분석을 이용하여 DBDC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 적합한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재방문 의사나 프로그램 만족도와 같은 방문객 행태와 관련된 변수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에 대한 방문객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좋을수록 입장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적합한 설명변수로 재방문 의사와 프로그램 만족도로 선정하였다

반면 축제 방문 경험, 편의시설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축제 정보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제시금액에 대한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이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지불의사를 묻기 때문에 1:1 면접조사로 진행되어도 응답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대상지와 본 연구의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명변수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 다른 설명변수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경유형 관광지로 인식되고 선박요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축제장에서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4-3)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지불의사금액 추정 모형

## 2.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 추정

### 1) 시나리오 1

한국해운조합(2017)에서 발표한 연안해운통계연보에서 모슬포와 가파도를 운행하는 여객선의 1년간 탑승 인원은 573,358명으로 이 중 가파도 지역주민들은 23,677명으로 4%를 차지하고 나머지 96%는 일반 방문객들로 나타났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객을 추정하기 위하여 여객선 1대당 294명 정원이 탑승한다는 가정하에 아래의 식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text{축제 방문객 수} = (\text{여객선 1대당 최대 승선인원} \times \text{하루 운행 수} \times 30\text{일}) \times 96\% \quad \dots\text{식 (12)}$$

모슬포 운진항에서 가파도로 가는 여객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294명으로 하루에 8번 운행한다. 위의 식(12)에 적용하여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객 수를 산출하면 약 67,737명으로 나타난다.

$$\text{총 경제적 가치} = \text{1인당 지불의사금액} \times \text{축 방문객 수} \quad \dots\text{식(13)}$$

이를 위의 식(13)에 대입하여 1인당 지불의사금액과 평균 방문객 수를 곱하여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는 220,958,094원으로 추정되었다.

### 2) 시나리오 2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최근 3년간 방문객 수는 2015년 41,000명, 2016년 35,000명, 2017년 31,000명으로 집계되었다. 3년간 방문객 수로 평균 방문객 수를 추정하면 약 35,666명으로 산출된다. 이를 위의 식(13)에 대입하여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는 116,345,492원으로 추정되었다.

### 3) 시나리오 3

시나리오 3에서는 시나리오 1에서 산출한 축제 방문객 수와 시나리오 2에서 산출한 축제 방문객 수의 평균 방문객수를 구하여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평균 방문객 수는 51,701명으로 산출되었으며,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는 168,648,662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4-19〉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

(단위 : 원, 명)

구분	1인당 지불의사금액	방문객 수	총 경제적 가치
시나리오 1	3,262	67,737	220,958,094
시나리오 2	3,262	35,666	116,345,492
시나리오 3	3,262	51,701	168,648,662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축제가 생겨났다. 지역축제는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화합 등 사회·문화·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정착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예산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공공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자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8년 정부는 지방재정 효율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축제에 지원하던 예산들을 삭감하였고, 이로 인해 약 200여 개의 지역축제가 통폐합되면서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축제들이 자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후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마을 단위에서 개최하는 소규모 지역축제의 경우 축제를 하나의 지역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축제 운영 조직의 경제적 안정성은 축제의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제의 유료화를 가정하여 축제 운영 조직의 경제적 자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역축제가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축제 운영 조직의 자체적인 자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자원 조달을 위한 방안으로 축제 입장료 도입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와 가치추정 연구방법론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지역축제와 같은 관광이벤트는 비시장재화이기 때문에 공공재로 분류된다. 이용가치와 비용가치로 구성된 공공재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연구방법론으로 선정하였다. 그다음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적용 절차에 대해 검토하였고, 조건부가치추정법의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를 최소화한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NOAA 패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다.

제시금액을 도출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이용하여 제주도민과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 설문에 사용될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의 5가지 제시금액을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가파도 청보리 축제장 일원에서 축제를 경험한 방문객 400명을 대상으로 이중양분 선택형 질문법을 이용한 1:1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82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해 표본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로짓(logit)분석을 이용하여 입장료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적합한 모형을 추정하기 위하여 후진제거방법을 이용해 제시금액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객의 1인당 입장료 지불의사금액은 3,262원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지역 공영 관광지의 평균 입장료가 1,500원임을 고려할 때 2배나 높은 금액이며, 방문객들이 공영 관광지의 입장료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자 하는 것은 청보리 축제가 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축제 방문객 수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나리오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1에서는 여객선의 승선 인원을 기준으로 방문객 수를 산출하여 축제의 총 방문객 수는 67,737명으로 산출되었고, 총 경제적 가치는 220,958,094원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 2에서는 최근 3년간 방문객 수의 평균으로 방문객 수를 추정하여 35,666명으로 산출되었고, 총 경제적 가치는 116,345,492원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 3에서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방문객 수의 평균으로 계산하여 평균 방문객 수는 51,701명으로 산출되었고, 축제의 총 경제적 가치는 168,648,662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지불의사금액 함수 추정 모형을 도출하였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 입장료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축제의 재방문 의사와 축제 프로그램 만족도로 나타났다. 두 가지의 변수는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면서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축제를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을수록,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입장료 제시금액에 대해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지불할 의사가 높아졌는데, 이는 입장료를 전혀 지불할 의향이 없는 이유에서 '축제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입장료를 받는 자체가 싫어서'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축제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을 받기 때문에 응답자들에게 지역축제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하여 응답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입장료 지불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개최지가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축제 방문 목적이 강하고, 방문객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제주도 전체가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방문객들이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목적형 관광지가 아닌 경유형 관광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입장료뿐만 아니라 선박요금을 지출하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선박요금과 입장료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 지불의사가 낮아지고 결국 소득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분석하면 도민이 144명, 도외 관광객이 238명으로 도민들보다 관광객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40대에서 60대의 중장년층이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를 방문할 때 가족·친지, 친구, 모임, 동호회 등 단체와 같이 방문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가시간이 많은 중장년층이 가족이나 친구, 모임 등에서 축제를 방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가파도의 자연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문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축제추진위원회는 올레길과 청보리밭 등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파도 청보리 축제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 만족도를 실증분석 결과 축제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3.02, 축제 편의시설의 만족도는 3.08, 축제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3.16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축제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이 더 보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방문객의 축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축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선 축제와 프로그램을 보완하여야 하며, 그에 투입되는 재원을 축제 입장료 도입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즉, 축제의 입장료 도입은 축제 운영 조직의 경제적 지속성 확보와 더불어 축제 프로그램과 시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축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던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등 대규모 축제가 아닌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개최되는 소규모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는 정부의 축제 예산 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들이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는 지역축제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제 운영 조직의

자생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지불의사를 조사하여 입장료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경험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장료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연구 분석에 사용된 382명의 표본 중 315명은 입장료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도출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경제적 가치는 2018년 제10회 가파도 청보리 축제에 투입된 예산인 30,000,000원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축제의 유료화 전환 시 입장료 도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합리적인 입장료를 책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경제적 가치 추정은 순수 입장료만 계산하였는데, 축제장 내에서 지출하는 부가적인 금액들을 고려하면 축제의 경제적 가치는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가파도로 들어가기 위해 선박요금을 지출하였다는 점에서 응답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3,236원보다 체감하는 금액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 관광지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로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홍보·마케팅적 접근을 시도 할 수 있다. 분석결과로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주 방문객은 40~60대 중장년층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가족, 친구, 모임 등 단체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중장년층 단체 방문객들을 주요 표적시장으로 선정하여 홍보 및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 구성,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를 더 높인다면 가파도 청보리 축제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하나의 관광 목적지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축제 운영 조직의 자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하여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연구방법론으로 사용한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발

생할 수 있는 편의(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중양분선택형 질문법을 사용하였지만, 편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연구조사원들이 1:1 면접조사로 진행하지만, 야외공간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집중도가 낮아질 수 있다.

둘째, 축제장에서 지출하는 모든 경제 행위와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상 육지의 지역축제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축제가 목적형 관광지가 아닌 경유형 관광지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지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은 응답자의 지불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표본을 가파도 청보리 축제 방문객들만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축제에 적용할 때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축제의 비이용가치를 더 세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축제의 잠재 방문객까지 넓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위의 한계점들을 보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자 편의를 더 줄이기 위해 지불의사 유도방법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설명변수를 선정하여 더 적합한 지불의사 함수 추정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며, 축제장에서 행해지는 경제 활동에 대한 지불의사금액도 도출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표본 설정에 있어 축제 내국인 방문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잠재 방문객 등 다양한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대규모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소규모 지역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

### <국내문헌>

- 고두갑·곽수경(2017). 섬 축제의 경제적 효과 및 활성화 방안:임자도 톨립축제를 중심으로. 『한국 도서연구』 29(3): 51-83.
- 고태호(2007). 관광개발정책의 비용-편익분석. 박사학위청구논문.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 권오상(1999). 『환경계획론』 박영사.
- 김규섭(2010). 영천한약축제의 추진실태와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CVM기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 김사현·김규호·박세중(2016). 『관광경제학』 백산출판사.
- 김성혁·고호석·김순하(2000). 지역축제 관광객의 시장세분화와 선택속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10대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4(1): 259-280.
- 김성현(2005). 지역축제의 지역경제활성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39(4): 221-246.
- 김영·이상영·신용광·김은자(2004). CVM을 이용한 안동민속축제의 가치평가. 『농업경영·정책연구』 31(3): 444-461.
- 김일용(2009). 지역축제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명성산 억새꽃 축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 김차동·김항석(2010).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전라북도 지역 축제를 중심으로. 『국제경상교육연구』 7(2): 65-88.
- 김학도(2010). 지역축제 성과의 결정요인:축제 수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청구논문.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 김현기(2001). 충북 지역문화축제행사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1: 55-73.
- 김희승(2006)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추진방안, 농촌사회, 261-293
- 농어촌연구원(2013). 「소규모 농촌지역축제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모델 개발」
- 류문현(2009). 물의 가치추정을 위한 경제학적 기법. 『물과 미래』 42(10): 30-36.
- 류성욱(2004). 관광 및 여가 자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법에 대한 비교:진술선호 선택법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6(2): 105-125.

- 류인평·박용배(2006). 지역축제 주민의 참여 행동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김제 지평선축제를 중심으로. 『관광경영학연구』 10(1): 87-115.
- 문화체육관광부(2006). 「한국 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박광서(2010). 조건부 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한 축제의 경제적 가치 평가. 석사학위청구논문.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 박재성(2017). 활동관여와 장소애착에 따른 수원천의 경제적 가치 평가:CVM기법 활용. 석사학위청구논문. 경기대학교 여가관광개발학과.
- 변경화·강은정(2013). 제주도 가파도에 있어서 영적공간의 형성과 특징.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81-182.
- 변경화·이정림(2012). 가파도 커뮤니티공간의 변천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4(4): 37-46.
- 송재호(2003). 제주 해역 문화자원 활용방안. 『탐라문화』 23: 117-131.
- 신백수(2005). 문화예술축제의 경제적 가치추정에 관한 연구:200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중심으로. 박사학위청구논문,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 신유림(2015). 제주 농촌체험관광 가격탐색에 관한 연구:CVM을 이용한 한림읍내 체험상품(안)을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 안정하(2013). 유료화를 위한 문화관광축제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진주남강유등축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 윤신정(2008). 메타분석에 의한 CVM 기법의 타당성 검증. 석사학위청구논문.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 이경화(2016).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축제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나주 이슬촌 크리스마스축제를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동신대학교 관광학과.
- 이승경(2008). 축제의 현황분석을 통한 축제지원정책의 새로운 방안 제시. 『신라대학교 예술연구』 14: 19-32.
- 이우경(2012). 경산자인단오제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DB-DC CVM을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영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 이은주(2017). 학술지 게재논문 분석을 통한 행정학에서의 지역축제 연구동향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4): 101-110.
- 이재언(2017). 『한국의 섬:제주도』 지리와 역사.
- 이정학(2012). 『레저의 이해』 대왕사.

- 이정훈·김성우(2014). 지역산업연관모델을 활용한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성마늘국제  
연날리기대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6(2): 351-374.
- 이주경(2015). 조건부가치측정법에 의한 전주세계소리의 경제적 가치추정 연구. 석사학위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과.
- 이진권(2009). 생태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서의 CVM 기법의 편의와 극복방안. 『서비스산  
업연구』 6(2): 33-52.
- 이진희(2013). 제주도 관광지의 관광동기유형에 따른 관광만족에 관한 연구:중문관광단지를 대상으  
로. 『관광학연구』 37(7): 11-32
- 이한성(2015). 농어촌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수출기반모형을 이용하여. 『지역개발연  
구』 47(1): 27-39.
- 임정현(2010). 제주지역관광기금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CVM과 IO Model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임화순·고계성(2006). 관광목적지 매력속서에 따른 중요도-성취도 연구: 일본 오키나와  
(Okinawa) 중심으로. 『관광연구』 21(1): 177-190.
- 임화순·고계성(2013). 관광지 방문객의 방문동기가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경남 통  
영시 미륵도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7(2): 289-302.
- 장성수·김종기(2012). 제주지역 관광 연구 동향에 관한 고찰:의미연결망 분석을 중심으로. 『탐라문  
화』 40: 251-381.
- 정강환(2004). 『관광이벤트』 월간이벤트.
- 정강환·안정하·임명재(2012). 축제서비스요인이 방문객 만족도와 지역관광에 미치는 영향:함평나비  
대축제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12(4): 107-122.
- 제주관광공사(2011). 「제주관광시장동향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2017).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 최용복·부창산·김민철(2012). 도서 관광지의 선택속성, 서비스 가치, 만족도 및 행동의도 관계 연구:  
추자도를 대상으로. 『수산해양교육연구』 24(3): 406-415.
- 허중욱(2005). CVM을 이용한 비시장 관광자원의 가치추정. 『관광연구저널』 19(3): 369-378.
- 환경부(2004). 「환경재에 대한 편익추정 지침서」

〈외국문헌〉

- Bateman, I. J., Green, C., Tunstall, S. and Turner, R. K.(1992).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Flood Harzard Research Centre. MiddlesexUniv.
- Bateman, I. J., Carson, R. T., Day, B., Hanemann, W. M. and Hanley, N.(2002). *Economic Valuation with Stated Preference Techique: a Manuals, Cheltenham. MA:Edward Elgar Publishing.Inc.*
- Boyle, K., DesVouges, W., Johnson, F., Dunford, R., and hudson, S.(1994). An Investigation of part - Whole biases in Contingent Valuation Studies. *Journal of Envriental Economics and Managemetn.* 27: 64-83.
- Buckland, S., Macmillan, D., Duff, E., and Hanley, N.(1999). Estimating mean willingness to pay from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studies. *The Statistician.* 48(1): 109-124.
- Carson, R. T. and Mitchell, R. C.(1993). The Value of Clean Water: The Public's willingness to Pay for Boatable, Fishable, and Swimmable Quality Water. *Water Resources Research* 29(7): 2445-2454.
- Carson, R. T., Hanemann, W. M. and Mitchell, R. C.(1986). *Determining the Demand for Public Goods by Simulating Referendums at Different Tax Pric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Diego.
- Carson, R. T. and Mitchell, R. C.(1989). *Using Surveys to Value Public Goods: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Ciriacy -Wantrup, S. V.(2947.) Captital Returns from Soil-Conservation Practice. *Journal of Farm Economics.* 29.
- Getz. D.(1991).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New York: Van Nostrand Rein Hold.
- Gtez. D.(2002). Why Festivals Fail. *Event Management* 7(4): 209-219. Cognizant Communication Coporation :
- Hanemann, W. M. and Kanninen, B.(1996).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iscrete-Response CV Data.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Hanemann, W. M., Loomis, J. B. and Kaninnen, B. J., (1991). Statistical Efficiency

- of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73: 1255-1263.
- NOAA(1993). Report of the NOAA Panel on Contingent Valuation.
- Rao, V.(2001). Celebrations as Social Investments:Festival Expenditures, Init Price Variation and Social Status in Rural India. *Th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38(1): 71-97.
- Ritchie, B. W.(1984). Assessing the Imapct of Hallmark Events:Conceptual and Research Issu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23(1): 2-11.
- Sorg, C. F. & L. J. Nelson(1987). Net Economic Value of Waterfowl Hunting in Idaho. Resource Bulletin RM-12. Fort Collins. *Co: USDA Forest Service*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한국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

--	--	--

##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경제적 가치 추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며, 제시된 문항을 읽으신 후 진지하게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조사원에게 말씀 해주십시오.

통계법에 의거하여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조 사 자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정다혜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관광개발학과 교 수 임화순

(jdh0511@jejunu.ac.kr / 010-6850-0025)

# 1. 방문자 행태

## 1. 가파도를 이전에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1-1번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2번 문항으로 이동)

1-1. 가파도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 (            ) 회

## 2.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이전에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2-1번 문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3번 문항으로 이동)

2-1. 가파도 청보리 축제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다? (            ) 회

## 3. 귀하는 향후에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4. 다음은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 느끼시는 대로 체크(✓)하여 주십시오.

축제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 축제의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2. 축제의 편의시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이 축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5.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습니까?

- ① TV·라디오 등 언론매체                      ② 인터넷                      ③ 팸플릿 등 축제 홍보자료  
④ 주변 지인                      ⑤ 여행사·항공사                      ⑥ SNS  
⑦ 현수막·광고탑                      ⑧ 기타 (                      )

## 6. 가파도 청보리 축제에 누구와 함께 방문하하셨습니까?

- ① 혼자                      ② 가족·친지                      ③ 친구  
④ 직장동료                      ⑤ 단체(학교 종교 친목 동호회 등)                      ⑥ 기타 (                      )

## 7.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방문한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가파도의 자연경관 감상을 위해서
- ②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 ③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 ④ 교육적인 목적으로
- ⑤ 한번쯤 축제를 방문해보고 싶어서
- ⑥ 기타 (\_\_\_\_\_)

## II. 가파도 청보리 축제에 대한 설명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매년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약 한달 동안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에서 진행되는 특산물 축제입니다. 가파도는 대정읍에서 뱃길로 10여분, 남쪽으로 5.5km 해상에 있는 섬으로, 가파도의 특산품인 청보리는 제주의 향토 품종으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높고 푸르게 자라나 해마다 봄이 되면 10만여평의 청보리밭 위로 푸른 물결이 굽이치는 장관을 이루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에 가파도에서는 특산품인 청보리와 섬 속의 섬 가파도를 널리 알리고자 2009년 제1회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시작으로 10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가파도 청보리 축제 (한국관광공사)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where/festival/festival.jsp?cid=712175>

- ▶ 행사기간 : 매년 4월 중순 ~ 5월 중순 (한달 간 개최)
- ▶ 장 소 :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일원
- ▶ 행사내용 : 청보리밭 걷기, 소망기원 돌탑쌓기, 보리밭 연날리기 등
- ▶ 주 최 : 대정읍
- ▶ 주 관 : 가파도청보리축제위원회

8. 귀하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Ⅲ.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가치 추정 질문

※ 다음은 가파도 청보리 축제의 입장료에 대한 **지불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지불의사를 추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상의 상황**이 제시하였습니다. 잘 읽어보신 후 다음 질문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가 상 상 황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2009년 '제1회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년째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가파도 청보리 축제는 최근 3년간 지자체로부터 축제 예산을 지원 받지 않아 **축제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장료**」를 받고자 합니다.

\* '진주남강유등축제', '함평나비대축제' 등은 축제의 예산 지원이 감소하면서 축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 입장료는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 ▶ 행사장 안전 관리
- ▶ 방문객 편의시설(간이 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 ▶ 축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 ▶ 가파도 환경보호 활동

9.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개최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초기 제시 금액> 만큼의 입장료를 내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				
<p style="text-align: center;">그렇다면,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개최하기 위하여 &lt;<b>2배 금액</b>&gt; 만큼의 입장료를 내실 의향이 있습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그렇다면, 가파도 청보리 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개최하기 위하여 &lt;<b>1/2배 금액</b>&gt; 만큼의 입장료를 내실 의향이 있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① 예</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② 아니오</td> </tr> </table>	① 예	② 아니오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① 예</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② 아니오</td> </tr> </table>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	↓				
11번 문항으로 이동	10번 문항으로 이동				





## ABSTRACT

###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Regional Festivals That Uses a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Focusing on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Gapado Green Barley Festival -

Da-hye Jung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aw-soon Lim

With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in 1995, a number of regional festivals came into being nationwide as a means to promote smaller regions and reinvigorate regional economies. As they generated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effects such as enhancing the image of said regions, activating regional economies, and bringing unity to regional communities, regional festival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a means of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most of regional festivals depend on government subsidies for their budget and cannot survive for long without public funding. In 2008,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ut the budget provided for the festivals in implementing its efficient local finance policy, which triggered the discontinuation and merger of about 200 regional festivals, thus making many festivals unable to survive without national funding. It gave rise to the suggestion that there had to be measures to boost the financial self-sufficiency of such festivals in order to ensure their sustainability. Especially, as small regional festivals which are held by villages which tend to be perceived as regional projects, the financial

stability of festival operating organizations may serve as a crucial factor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previously mentioned festivals.

Accordingly, this study explored a plan to promote the financial self-sufficiency of festival operating organizations, assuming that there exist chargeable festivals, with the goal of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small-sized regional festivals. Securing funding for the festival operating organizations not only ensures the stable operation of the festivals but also promotes the sustainability of festivals through their reinvigoration. Furthermore, a transition from free-of-charge festivals into a fee driven structure is a sensitive issue, a study should take place on the applicability of charges by estimating the visitors' willingness to pay.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is study selected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hich estimates the economic value of non-market goods like regional festivals and applied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as a method to promote the willingness to pay. Afterwards, for the purpose of estimating the total economic value of a festival, this study identified the willingness to pay (WTP), assuming a situation in whic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harges to ensure the continuation of festivals. A one-on-one survey was conducted with visitors of Gapado Green Barley Festival, and a sample of total 383 valid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as used in the analysis.

The study showed that the average willingness to pay (WTP) per person for the Gapado Green Barley Festival was 3,262 won. This amount is more than twice as much as the 1,500 won average charge for other public tourist sites in Seogwipo, which suggests that visitors put a greater value on the Gapado Green Barley Festival than on other public tourist destinations. And given the ferry fare that visitors paid to come to the festival, the WTP as actually registered by the respondents should be even greater. The total economic value of the Gapado Green Barley Festival estimated by multiplying the total numbers of visitors calculated in three different scenarios by the average WTP were 220,958,094

won, 116,345,492 won, and 168,648,662 won, respectively, which was larger than 30,000,000 won, the budget spent on the 10th Gapado Green Barley Festival in 2018, thus demonstrating the applicability of a chargeable festival as a plan to fund the festival operating organizations.

The study identified the intention to return to a festival and the satisfaction with festival programs as the variable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WTP for the Gapado Green Barley Festival. These two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he coefficient estimate shows a positive (+) value. In other words, the greater the satisfaction with the festival program, the greater the willingness to return to the festival thus the greater the willingness to pay the aforementioned charge for the festival. On the other hand, the study showed th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insignificant. This seems to be influenced by the regional peculiarity which has the whole of Jeju-do as a tourist attraction and the fact that visitors have to pay a ferry fare to get into Gapado.

This research and its results have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s the study estimated the WTP of the visitors to a festival, the results may serve as basic data for calculating a reasonable charge and when adopting a pricing plan for a charge for festivals in the future, they may be used as grounds for introducing a charge and as data for forecasting visitors based on the varying amount of charge. Second, it can lead to the creation of promotional and marketing plans for the Gapado Green Barley Festival. Creating a marketing strategy through market segmentation that has as its main target of the early and late middle-aged people who constitute the largest group that visit the Gapado Green Barley Festival could attract more visitors.

This study estimated the economic value of the festival to boost the financial self-sufficiency of the festival operating organization, and demonstrated the applicability of a chargeable-schemed festival to make regional festivals sustainable. Other studies that estimated the economic value of festivals wanted to prove the necessity of government funding for festivals, wherea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xplored a plan allowing for the operating organizations to become self-sufficient. The study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broke from the old practice of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large regional festivals and has focused on small-sized regional festivals.